



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14호] 2021년 1월 15일



05 올해는 소의 해, 평창 서울대목장 가보니



0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희범 회장, 오세정 총장 신년사



04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반기업 정서 없애는 게 최우선 과제”

관악캠퍼스 정문 걷는 공간된다

전기차 충전소 쪽에 새 도로 내

드나드는 차량 우회 시키기로

3월 착공 8월 중 완공 목표

사람 중심 열린 공간 변신 기대

‘샤’ 모양으로 잘 알려진 모교 관악캠퍼스 정문은 왕복 4차선 도로 위에서 있다. 항상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기념사진 찍기조차 쉽지 않다. 고 아한 대학의 상징으로서 정문의 의미는 약해지고, 일일 차량 1만5,000대가 드나드는 ‘교통 구조물’이 됐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오는 8월이면 이같은 정문 주변 풍경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모교가 정문 주변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서울대 정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주요 골자는 △정문 주변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고 △정문 옆 자동차 우회도로를 확보하며 △정문 앞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 현재 정문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서울대 정문의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캠퍼스위원회를 통과한 후 3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1월 현재 추진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의 보행로가 확대돼 ‘샤’ 정문을 품은 광장이 조성되고, 정문 아래로 차 대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된다. 정문을 관통하던 차도는 전기차 충전소 쪽에서 들어와 정문 옆으로 지나도록 우회도로를 낼 계획이다. 정문 부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매일 혼잡을 빚는 정문 앞 교통 동선도 매끄럽게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8면에 계속



모교가 추진하는 정문 환경개선 계획을 현재 모습 위에 표시했다. 차량은 정문 옆 우회도로로 통행하게 된다. 사진=기획처

관악춘추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다



오형규

국문82-89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본지 논설위원

새해 첫날을 산에서 맞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내내 놀리고 쏘그라든 느낌 탓일까요? 더 눈부시게 찬란해 서글퍼집니다. 그래도 탁 트인 정상에서 가슴을 활짝 펴봅니다.

산이라면 서울대 동문은 관악산부터 떠올립니다. 경기도에 ‘5악(岳)’이 있죠. 관악, 운악, 감악, 화악 그리고 개성 송악산이죠. 설악, 치악처럼 ‘악(嶽 또는 岳)’자 들어가는 산은 오를 때 정말 ‘악’ 소리가 납니다. 관악산도 만만한 산은 아니죠. 대학 때는 안 오르던 관악산을 종종 등산합니다. 그때마다 최후가스 자욱하던 젊은 날의 기억과는 판이한 관악캠퍼스의 풍광이 놀랍고 낮

설게 다가옵니다. 세칭 ‘샤대문’과 본관 도서관 등 몇몇 건물을 빼고는 옛 모습을 찾기도 힘들죠. 부지는 410만㎡로 두 배는 넓어졌고, 60여 개이던 건물이 223개 동(棟)으로 불어났습니다.

1970~80년대 엄혹하던 시절, 검붉은 벽돌의 봉어빵 건물은 1동, 2동 숫자로 불렸죠. 국립대학도 군대처럼 번호를 붙이고 ‘각’을 잡아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까지 규격화, 획일화했던 시절도 있었죠. 공간이 생각을 만든다고 했나요? 다양성과 개성이 한껏 고양된 이런 캠퍼스에서 다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등산 도중 바위 턱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보면 이런저런 상념이 듭니다. 서울대는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서울대에 무엇인가?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란 가르침에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을까? 자꾸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후배들이 캠퍼스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네요. 서

울대 졸업장이 더 이상 ‘취업 보증수표’가 아닌 세상이나가요.

정상에 서니 자연스레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다’라는 철학자 최진석의 경구가 떠오릅니다.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요, 삶의 높이가 사회와 국가의 높이가 된다는 것이죠. 산에 올라보면 더 공감이가는 말이지요.

드넓은 캠퍼스도 관악산 꼭대기에선 작은 마을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 미래 노벨상도 있고, 캠퍼스 정치도 있겠죠. 그러나 고개를 돌리면 사방으로 끝없는 산들과 건물 숲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서울대는 어떻게 비칠까요? 저 멀리 더 높은 산들에서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연초 다짐은 대개 부질없죠. 그래도 새해엔 더 높이 올라 더 멀리 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폴 부르제)고 했으니까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모든 분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없이 조찬포럼만 개최합니다

신년인사회를 겸해 개최하려 했던 조찬포럼 행사를,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조찬포럼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동문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 일시 : 2021년 2월 18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더플라자호텔(서울시청 앞)
 - 강연자 및 주제 : 추후 공지
 - 참석인원 : 40명 이하(선착순)
- ※ 방역 지침에 따라, 행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방법

참가신청자 이름, 단체(과정명), 연락처 기재 후

2월 5일(금)까지 참가비 입금

문자 : 1877-2039(전화 수신불가)

이메일 : member@snua.or.kr

참가비 : 회비 5만원 (포럼 10회 연회비 50만원)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또는 2021년도 연회비를 내주신 분에 한해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회비 계좌 : 신한은행 140-001-180304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예약 및 문의 : 대표전화 02-702-2233

2021년도 정기총회·제23회 관악대상 시상식

2021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23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4시
- *식사제공 없음
- 장소 :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서울 삼성동 소재, 봉은사 건너편)
- 행사내용 : 정기총회, 관악대상 시상 및 유공동문 표창 등
- 참석범위 : 사전 예약하신 동문 500명 이내
- *평생회비 또는 2021년도 연회비를 내주신 분에 한함
- (회비 계좌 : 신한은행 140-001-1180304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참가신청 기간 : 2021년 2월 18일(목)~3월 5일(금)
- *한정된 장소이므로,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꼭 사전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동창회의 모든 행사는 동문님의 귀한 후원으로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후원은 아래 계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예약 및 문의 : 대표전화 02-702-2233
- ※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 및 참석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영태 SK넥실리스대표 1억원

지난해 12월 24일 김영태(금속공학81-85) SK넥실리스 대표가 분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김 동문은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 분야 전문가다. 모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금성전선과 금성전선의 후신 LG전선, LS엔트론에 몸담으며 동박 연구에 매진해왔다. 이번 기부로 새로운 특기장학금을 설립했다.

김 동문을 비롯해 세밀 찬바람에도 얼어붙지 않는 모교 사랑을 보여준 기부자들이 있다. 이병훈(경영81-85) ACPC 대표가 1,200만원, 류명준(언어90-97) 흥국대표가 1,000만원, 손경희(HPM 39기) 동문이 1,000만원을 쾌척했다. 모두 이번 기부가처음이 아닌 동문들이다. >>6면에 계속

장학금 기부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www.snua.or.kr

전화 02-879-8288

계좌번호(예금주:재단법인 관악회)

※ 무통장 입금시 성명, 입학연도 기재바랍니다.

신한 140-006-909438 농협 069-01-272391

우리 1005-202-771270

이제는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이희범 회장

취미모임·조찬포럼·우대혜택 확대 코로나 위기 속 순항, 동문들 덕분

존경하는 서울대 동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가득찬 새해를 맞이하여 43만 동문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커다란 발전이 있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은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으나, 많은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본회가 계획한 여러 사업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된 홈커밍데이 행사에 몰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동문들의 훈훈한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듭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저는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취미를 살리면서 함께 즐기는 동창회’, ‘회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 등 4개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학습위원회를 발족, 네 차례의 조찬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최재봉 성균관대 교수, 양돈선 박사(전 독일 재경관), 김난도 모교 교수,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등이 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안을 들려줬습니다.

올해는 IT산업의 성공신화, 원로선배의 인생 스토리, 한·미 및 한·일 등

외교 관계, 우리 고전과 한류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학습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 나눔 차원에서 행사 강연은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 일반인에게도 열어 놓겠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동창회’를 위한 조찬포럼과 함께 ‘취미를 살리면서 함께 즐기는 동창회’ 구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취미 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골프대회, 등산대회, 국토문화기행 등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연기된 동문 바둑대회도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취미 모임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개방적인 형태를 띠어, 모임별로 회장과 간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볼링, 당구모임 등의 결성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습, 취미 모임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어디를 가야 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지난해 ‘회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창회’를 위해 국내 병원·호텔·펜션·리조트·식당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전국 24개 병원에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케이호텔 앤 리조트, 엠베서더 호텔 그룹, 라마다 군산 호텔, 하늘계곡연수펜션 등 동창회와 약정을 맺은 곳을 이용하실 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올해도 동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격 있는 병원, 호텔, 식당 등과 업무 협약을 늘려가겠습니다.

총동창회의 주요 사업으로, 모교의 연구 활동과 후배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총 1,280명의 재학생에게 3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젊은 교수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장학지원 규모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올해는 총동창회가 동문 화합, 모교 지원을 넘어 사회공헌을 위해서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본회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과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문, 취약계층 학생, 6·25 참전용사 후손 등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는 많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종잣돈으로, 10억원 목표를 세워, 동문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동창회의 미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말 발족한 ‘회칙개정위원회’를 통해 회장 임기, 회장 선출 방법, 총동창회 거버넌스 문제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시대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회칙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친애하는 43만 동문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동창회는 모교와 동문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서울대와 서울대인 발전의 든든한 고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약속한 과제들을 꼼꼼히 확인해 가며 서울대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지방은 물론 해외 지부도 방문해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를 크게 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소는 부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존재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신 가운데 소처럼 차분한 마음가짐과 독심 있는 근면성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식 공유로 재난 극복 힘 보태겠습니다



오세정 총장

우리 사회와 호흡하는 모교 재확인 올해 다시 캠퍼스에서 만나길 소망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례없는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환자와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썰렁했고, 강의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듯해서 조금 마음을 놓다 보면 다시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인류가 직면한 재난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겨울을 맞아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새벽 일출을 보면서 포부와 각오가 예년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냥 움츠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끝을 내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활동을 수행한 의료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힘들고 외롭지만 격려 지침을 잘 준수했던 시민들은 우리가 서로 공감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상징인 도서관과 기숙사를 계속 열었고, 대학원생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직원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외국인 학생들의 적응을 도왔고, 지난 달에는 엄중한 환경에서도 대학입시가 잘 진행되도록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교수님들은 SNU 국가전략위원회와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사회 연구팀을 중심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식 공유에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다행히 서울대학교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큰 사고 없이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대변혁 시대는 위험도 많지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인류사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슬기롭게 노력하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공학, 정보기술,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대학과 사회의 변혁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더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은 더 고조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4차 산업혁명 이상의 큰 변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자신의 위치에서 이 대변혁을 수행하는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서울대 동문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캠퍼스에서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관악 캠퍼스를 꼭 메운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즐거운 축제의 마당을 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바 이 오 벤 처 1 호 기 업

바이오니아의 끊임없는 열정이 바이오한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1992

09 국내 최초 PCR용 효소 및 primer (합성 DNA) 개발 공급

1995

07 국내 최초 PCR 장비 개발

2000

05 세계 최초 전자동 DNA / RNA 384 동시 합성기 개발

2001

09 세계 최대 규모 DNA 합성센터 준공

2005

12 KOSDAQ 상장

2009

12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시스템(ExiStation™) 29개 보건소 / 시립병원 /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급

2011

09 세계 최초 전자동 초고속 단백질 합성기 (ExiProger™) 개발

2012

06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보건복지부

2013

12 5백만불 수출탑 수상 및 수출공로 표창 (산업자원부장관상)

2014

07 세계 최초 RNAi 나노입자 치료제(SAMIRNA™), 원천특허 등록 (미국)
11 *Lb. gasseri* BNR17 체질방 감소 생리활성 기능 2등급 식약처 인정

2015

01 세계 최고속 PCR 장비 (AllinOneCycler™) 개발
09 SAMIRNA™ 기반 신약후보물질 3건, (약)유한양행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6

10 세계 최초 지카 다중분자진단키트, WHO EURL 등재

2017

02 아프리카헬스 올해의 의학상 수상
09 대한민국 신약대상 기술혁신부문 대상 수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03 지카 다중분자진단키트 브라질 ANVISA 승인
10 아시아 최초 HIV-1 정량분석키트 (AccuPower® HIV-1 Quantitative RT-PCR Kit)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 (IVD List-A CE) 획득

2019

10 아시아 최초 HCV 정량분석키트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 (IVD List-A CE) 획득

2020

02 아시아 최초 HBV 정량분석키트 유럽 체외진단시약 인증 (IVD List-A CE) 획득
현재 장비 19건, 진단키트 68건, 추출시약 22건, 식약처 / CE-IVD 인증 완료

코로나가 막은 만남, 그래도 소통은 이어집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해외 각 나라에서 동창회장으로 봉사하는 동문들의 소망을 들어봤다. 해외에 나가 살게 된 배경과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현지 상황도 물었다. -편집자 주

“올해는 고국의 홈커밍데이 같 수 있길”



미주동창회 회장
신응남
임학70-74
Peter Shin 변호사

미주동창회는 작년 8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지난 31년을 꾸준히 지속해 온 미주전국 평의원 회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 서울대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란 말을 절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주동창회는 그간 전국 26개 지부의 협조로, 동창회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됐던 새로운 동문 1,600명을 발굴해 추가했습니다. 매달 동창회보를 지속적으로 월초에 받게 하고, 더 많은 동문들에게서 격려와 후원을 이끌어내며 소통과 화합의 광장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어 전임 회기에서 시작한 미주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센추리 파운

데이션 300만달러 모금 릴레이’ 운동을 펼쳐서, 현재 임기 내 총 40분의 종신 이사를 추대했고 20만달러를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동문 행사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영상만을 통해서도 느낄 수 없을, 직접 만나 온기를 나누는 10월 버들골 홈커밍데이에서의 만남 등을 동문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바람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요. 새로운 비전을 품고 모교 동창회와 긴밀한 연계, 후배 양성, 인재발굴 및 지원, 경영 현실화 운동, 더 나아가 미주동창회관 건립 등의 큰 꿈을 바라보며 동문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6월 제30차 미주 연례 전국 평의원회의가 LA에서 개최됩니다. 동창회 임원 및 동문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미주 동문과의 반가운 소통의 장,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중국 선후배님들 복귀 기다립니다”



중국동창회 회장
박영주
공법87-9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모교 졸업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2001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지평의 상해지사 수석대표로 부임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상해를 포함한 중국 화동지역(절강, 강소, 안휘성) 동문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상해지역은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매우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5월부터는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화동지역의 허브공항인 상해 푸둥공항은 전 세계에서 귀국하는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현재도 매일 5~10명 내외 귀국자들이 확진을 받는 상황입니다만, 당국의

엄격한 격리조치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하루 속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은 각국의 입국 통제조치로 고국과의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생활의 터전인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한 동문 선후배도 많습니다. 심리적인 단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새해엔 한국에 계시는 화동지역 동문들이 하루속히 중국으로 복귀하셔서 생업에 복귀하시고, 이미 복귀한 동문들과의 교제도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가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빠진 동문들과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보만리(牛步萬里)라고 합니다. 소피 해 새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목적을 이루는 소처럼, 동문들께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민주화 헌신 동문도 중용해 주세요”



일본동창회 회장
양관수
사회복지71-07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수

새해 소망에 앞서 제가 일본과 인연을 맺은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입학 때부터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운동 대열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1학년 때 공정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운동과 부정선거 철폐 등을 주장하는 운동에 참여해 제적을 당했지요. 이후 복학-제적 처분은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후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됐을 때, 학생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블랙리스트 1번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제적이었습니다. 유신독재 철폐운동을 계속했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된 1981년, 서울에서 재일동포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오사카로 출국했습니다. 편입학으로 모모야마학원대

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시립대 대학원에 입학했지요. 그러나 독재정권은 ‘재야정계 침투 간첩사건’을 조작해 저를 일방적으로 ‘재일본 간첩’에 지목했습니다. 귀국도 못 하다가 2005년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인정돼 서울대에 복학했고, 입학한 지 36년 만에 정식으로 졸업했습니다. 간첩조작사건도 2017년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발전시킨 서울대총동창회에 선불리 제안하는 것이 무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갖은 핍박과 탄압을 받아온 동문들이 서울대총동창회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감히 제안드립니다.

우리 서울대 동문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을 너무 압도적으로 차지하다 보니 폐해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도 겸손하게 받아들이 대한민국에 이익과 발전을 우선하는 진정한 엘리트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외 동창회 소통 플랫폼 제안합니다”



인도네시아동창회 회장
김 훈
임학76-80
인도네시아 전기차협회 고문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수치상으로는 한국보다 많이 심각합니다.(12월 29일 현재 사망률 2.98%, 누적확진 72만7,122명, 사망 2만1,703명) 상당수 정치인과 유명인사도 확진되어 그냥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등 최근 입각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규정책이 강화되어 과거보다는 긴장이 감됩니다. 거리두기는 한국과 비슷한 2.5단계라 할까요?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7시에 셔터를 내려야 합니다. 해외 입국도 도착해 격리시설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동창회는 3개의 단과대학과 나머지 연합대학으로 구분해 매년 두 번의 큰 모임을 갖습니다. 2019년에는 동문 음악회를 개최해서 신수정 전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아세

안 3개국과 한국총동창회 합창단 일원이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었지요. 이후 코로나가 닥쳐서 큰 모임은 못했으나 단과대학별 모임, 소모임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빼앗긴 소중한 시간을 새해엔 되찾았으면 해요. 단과대학별로 2년간 동창회장을 맡는데 코로나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새해에 새로이 연합대에서 배도운(언어79-83) 회장이 맡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돼 인도네시아 국내 여행이라도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고픈 심정입니다. 남한 땅의 20배가 넘고 미국 대륙보다 긴 인도네시아의 34개 주를 모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서울대가 국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해외에 퍼져 있는 동문들의 근황 파악도 제대로 해서 국내외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도록 총동창회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총동창회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호주동창회 회장
김정인
간호68-72
전 전남대 조교수

모교에서 대학원까지 졸업 후 전남대 조교수로 재직했고, 연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편 윤광홍(행대원71-73) 동문이 호주 관세청으로 파견돼 198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딸과 함께 호주 수도 캔버라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이민을 결정해 시드니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교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강연도 하면서 전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호주 시드니지부 동창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동문집을 발간한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서울대 시드니동창회 최초 여성회장이 이뤄낸 최초 동문집 발간이란 표제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총동창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

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총동창회의 관심과 사랑을 느꼈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리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보고 시들어 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실험을 거듭한 끝에,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씨앗이 있는 약한 가지를 조각내어 상처를 주고, 강한 가지에 붙여, 회복하고 자라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자란 혼성 과일나무처럼, 코로나의 상처 속에서 새 희망과 접목을 통해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동창회장으로서의 소망도 제 개인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30대 대통령 켈빈 콜리지의 명언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아니다, 천재도 아니다, 교육도 아니다. 끈기와 결단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서울대동창회 ‘세계 총회’ 어떨까요”



캐나다 밴쿠버지부 회장
강희순
심리75-79
전 캐나다 버나비시 교육위원

올해부터 캐나다 밴쿠버지부 서울대동창회장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심리학과에 편입, 대학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전남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1983년 결혼하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두 자녀를 기르며 틈틈이 밴쿠버 단과대학에서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 법정통역사 및 번역사, 밴쿠버 단과대학 강사로 일했고 아이들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에서 봉사하다가 버나비시의 교육위원으로도 선출됐습니다. 지금은 ‘세종 상담 및 의사소통 서비스’라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캐나다 다문화 정책에서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새해 소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작년 말 태어

난 손녀와 두 살 된 손자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여년간 진행해 온 다문화 포럼을 작년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단체장 입장에선, 우선 부족한 저에게 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을 지키면서도 그간 진행돼온 동창회의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젊은 동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문회에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창회의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각 동창회를 총동창회가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총회를 개최해보면 어떨까요. 모두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반기업 정서 없애는 게 경제단체의 최우선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바빴던 경제인 중 한 명이 손경식(법학57-61·본회 고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에 끝난 정기국회와 바로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그야말로 법안을 쏟아냈고 다수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법안이었기에 국회로, 경제단체들로 발길이 잦았던 것이다.

1월 13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서 만난 손 회장은 “이틀에 한 번은 마포구 경총 사무실에 간다. 그래야 여의도 정치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의 잦은 만남에도 법 제·개정 상황은 재계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연말에도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하셨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기에 좀 낙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래도 자주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대표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던 법안을 대표자만 아니라 임원까지 포함해 좀 유동성을 뒀고, 처벌도 당초 징역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으니까요.”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건 경영계도 동의하는 명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처벌 말고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려면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방하려면 그게 다 비용으로 연결되는 건데, 임원 및 대표자 처벌에 초점을 두다 보면 자칫 예방에 쓰여야 할 비용이 임원들 위험수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기업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실제 사고 예방을 위해 진짜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외국은 예방 활동을 정부가 합니다. 안전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이 있어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근로자 교육도 시켜 줍니다. 우리도 그런 조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어요. 기업들이 여기에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고, 정부 예산도 8,000억원 가량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재를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왜 자주 기업에만 부담을 주려고 하는지... 기업인을 처벌하고 법인에 벌금을 물리면 기업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경영자를 처벌하려면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밀한 논의 끝에 제정된 게 아니라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는 보완입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지요.

“최하 징역형을 정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건설회사들 보세요. 한 기업에 작업 현장이 최대 400개까지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안전 담당 임원이 그 현장을 하나하나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인 1조로 근무하게 한다거나, 안전 관리관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 통과된 법안을 그런 식으로 보완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제가 알기로 법을 만든 의원들도 상당수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작년부터 쏟아진 규제 법안 중 기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법안은 어떤 것인지요.

“최근 통과된 법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아무리 높아도 의결권을 3%로 제한했지요. 자칫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합해서 기업의 정보를 빼먹을 사람을 감사로 올리기 쉽게 됐어요. 재계의 항의 끝에 당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해서 3%이던 걸 각각 3%씩으로 완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해외에도 3%를 비슷한 게 있는지요. 딱 3%는 아니라도 감사위원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말입니다.

“없습니다. 3%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 박정희정부 때예요. 당시에 기업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3%를 도입했다가 기업들이 항의하니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는 항목을 법에 넣었지요. 그래서 3%를 거의 사문화됐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걱정되는 법안이 또 있나요.

“노동법 개정안도 문제가 있지요. 이번에 해고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고된 사람이 노조 활동을 하면 노사관계에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켰지 도움되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파업을 부채질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대체근로도 불가능하게 돼 있지요. 노조가 파업을 하면 현장 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일반 노조원들의 민의가 높아져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공권력이 좀 더 개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987년부터 노조운동이 활발해졌는데 당시엔 기업이 우위에 있었으니 권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움직임이었지요. 하지만 요새는 기업이 약자입니다. 정부가 노조 편을 들 게 아니라 적어도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경총이 제작년 겨울에 유럽 여러 회사들에 조사단을 보낸 적 있습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영국, 스페인이 공권력을 동원해 과격한 노조 활동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노사대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했지요.”



대담·글 : 하임숙(영문91-95)
채널A 보도제작에디터·본지 논설위원



△1939년 서울 출생 △1961년 한일은행 입사 △1968년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영학 석사 △1977년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1994년 CJ 대표이사 회장 △2005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07년 서울대발전기금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방송작가협회 찾아가 협조 논의

중대재해 처벌보다 예방 중요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립 지켜야

1961년 사회생활, 50년차 현역

법대 졸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

모교 자부심 커...구성원 윤리 지켜야

-우리나라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사노위는 사용자측 위원, 노동자측 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데 공익위원들이 거의 노조 측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적어도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이들로 선임돼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 등 여당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익공유제도 강행할 분위기던데요.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반발도 크고 원칙을 정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을 뚫고 경제가 잘 되려면 기업에 활력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활발히 경영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주어야지 이익을 나누라고 한다면 난감한 일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전제에 동의하나요?

“원론은 동의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치의 대중몰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가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선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양측의 격돌이 있는 것이지요.”

-여당 의원들도 단일화된 게 아니고 내부

에서 충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국정 운영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다양하게 갖춘 나라입니다. 정보기술(IT), 5세대 통신(5G), 바이오 분야에서 눈에 띄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요. 우리 국민은 머리가 좋아 인프라만 잘 갖춰주고 편안 잘 살아주면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정치 불안, 불안정한 남북 관계 등만 해소하면 더 잘 될 텐데 안타까워요.”

-회장님이 경총을 맡으신 뒤 경총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예전과 달리 위상이 낮아지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각에선 통합 이야기기도 나오고 있죠.

“저는 통합이 논의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의 전경련 격인 ‘게이 단련(經團連)’에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경총이 분리돼 나갔다가 다시 합쳐졌지요. 거기서도 노동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굳이 조직이 나뉘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조직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경제단체들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 봐도 반기업 정서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반기업 정서가 사라져야 합니다. 1, 2년 안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일단 시작은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총 내부에도 이런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기업 정서라는 게 정치권의 지속된 포

“맞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대놓고 탈세하거나 법을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국제청장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새 세무조사를 할 땐 어느 기업이 외형을 누락해 탈세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 주로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싸우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감시의 시선이 이렇게 촘촘한 요즘 누가 세금을 떼어 먹으려고 위법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반기업 정서가 잘 안 없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TV 드라마 영화인 것 같아요. 기업 또는 기업인이 나쁜 짓 하는 모습을 많이 묘사하거든요.”

-현실에서도 가끔씩 오히려 가족끼리 지분 다툼을 벌이는 식의 일이 생기니까요.

“그게 한두 건이 인상이 강해서 그런 건데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작가협회를 찾아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 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사례도 많으니 그런 사례가 많이 소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경총 회장의 마지막 해죠. 돌아보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정부 정책에 그나마 일부라도 반영이 될 때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지요. 상법 개정안도 사실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추진됐던 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강하게 반대했고, 그 이후 법무부 장관이 실장 등과 함께 경총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근거를 잘 설명해 추진이 안 됐어요. 지나갔겠거니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불거져 당황스럽습니다만, 결과가 어찌 됐든 경제단체장으로서의 정부 정책에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요.”

-1961년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셔서 올해 50년 되셨습니다. ‘직장인 손경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새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좌절된 경우도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법대를 나오셨는데, 법조인에 대한 꿈은 없었나요.

“어릴 때라 법대를 선택했지만, 대학 중간부터는 경영계 진출을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일 하는데 제약도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법대를 나왔다는 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며 배운 지식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또 대학 동기들이 법조계, 행정계, 국회에 많이 있으니 든든해요. 의견 교환도 자주 하고요.”

-동문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한평생 모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대학 랭킹에서 순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교수들과 학생들의 수준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가 차지하는 위상만큼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법이나 아니냐를 떠나 우리 동문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그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가 서울대 졸업생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눈 덮인 평창캠퍼스 목장 전경. 사진 왼쪽으로 우사가, 산자락 너머 오른쪽에 계사가 있다. 2013년 6월 건축물 40개동, 초지 30만평, 소 600두, 가금 6만수 규모로 신축된 평창캠퍼스 목장은 교육연구용뿐 아니라 수직산업용 동물도 사육하고 있다.

소도 서울대가 키운다…수원→평창 84년 이어온 친환경 목장

평창캠퍼스 목장 탐방

우리말에 식구(食口)는 가족을 뜻하고, 생구(生口)는 한집에 사는 하인이나 종을 이른다. 옛 조상들은 소를 가리켜 생구라 불렀다. 사람 대접을 할 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라. 소는 농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유사 시에는 군에 동원될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가축이었다.

서울대학교의 전신 중 하나인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37년 수의축산과를 신설, 부속 목장을 설치해 소를 사육해왔다. 중국이나 만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대동물 사육기술 및 질병 치료를 연구했고, 축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1945년 광복 이후 일본인 학자와 축산기술자가 떠나면서 발생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부속 목장은 1982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속 실험목장’으로 개칭됐으며 2013년 6월 건축물 40개동, 초지 30만평, 소 600두, 가금 6만수 규모의 평창캠퍼스 목장을 신축, 1년 만에 이전을 완료했다. 2016년엔 ‘실험’을 떼고 ‘목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를 맞아 지난해 12월 29일 평창캠퍼스 목장에 다녀왔다. 현지에 상주하며 밤낮으로 소를 보살피는 김희웅(수의학 83-87) 수의사가 취재를 도왔다.

교육연구·수직산업용 동물 사육

“수원에 있을 땐 건물부지, 사료포장, 초지 및 방목지를 모두 합쳐 4만8,000평에 불과했습니다. 대신 축종이 다양했죠. 한우와 젃소는 물론 돼지, 면양, 산양, 유산양, 사슴, 닭, 꿩, 메추리 등을 실습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육했어요. 평창에선 한우, 젃소 외에 산란계, 토종닭, 메추리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종은 많이 줄었지만 최첨단 사육시설을 갖춰 ‘저밀도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구축했어요. 교육연구용뿐 아니라 수직산업용 동물도 함께 사육하고 있습니다.”

해발 600미터. 웬만한 산의 꼭대기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장의 터는 넓어 500여 평의 축사 여섯 동이 한우 암·수컷, 젃소 암·수컷 등 품종과 성별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었다.



해발 600미터 청정 고지대 위치 30만평 초지서 사계절 풀 수확

600두 사육시설에 현재 270두 치즈 가공으로 국면 전환 기대

젃소 우사엔 로봇 착유기가, 한우 우사엔 로봇 포유기가 설치돼 있었다. 소의 목에 걸린 두 개의 센서로 활동량, 사료섭취량, 생체 신호 등 개체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CCTV로 우사 내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한 축사 안에서 울타리를 설치해 소의 성장단계별로 거주공간을 나눈 점도 눈에 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곧바로 원적외선 살균·보온장치 등을 갖춘 ‘허치’로 옮기고, 이곳에서 42일간 충분히 젃을 먹인 후 이유시켜 성장단계에 따라 울타리에서 울타리로 이동한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2개월 동안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기 쉬운데 이렇게 분리, 관리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였다. 14개월이 지나 가임기에 들면 임신을 시키고 10개월 후 분만하면 젃소의 경우 원유를 착유한다. 임신 기간엔 물론 별도의 공간에서 사육한다.

한우 수컷은 비육우(肥肉牛), 젃소 수컷은 육우(肉牛)라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고깃소’인 까닭에 비육우는 30개월, 육우는 20개월이 지나 성체(成體)가

되던 도축한다. 한우 암컷은 번식용으로, 젃소 암컷은 번식과 착유용으로 쓰이지만, 두어 번 새끼를 낳고 다섯 살이 넘으면 생산성이 떨어져 수컷과 마찬가지로 식용 도축된다. 자연 생태에서 기대수명이 20년인 것에 비하면 기구한 운명이다.

최신식 배합사료 제조시설도 갖춰

먹이 또한 본래 초식동물이므로 풀을 뜯어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기와 우유를 획득하기 위해 사육되는 ‘경제동물’인 까닭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후사료를 함께 먹인다. 풀과 농후사료의 양을 일정 비율 내에서 먹여야 하는데, 농후사료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반추위의 기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백명기(축산79-86) 모교 농생대 교수는 소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맞춤형 사료 개발과 한우의 미세 마블을 높이는 고급육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평창캠퍼스 목장은 소의 품종, 성별, 연령대별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농후사료와 풀을 섞어 만드는 최신식 배합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장 바로 앞에 30만평 규모의 초지가 있고, 이를 거둬 들어올 수 있는 대형 트랙터가 여러 대 있으니, 농후사료를 사다 섞는 건 식은 죽 먹기. 우사 앞 초지엔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푸른 잎이 흡사 잔디처럼 깔려 있었다. 목장엔 1년 열두 달 풀이 마르지 않는다는 증거다.

“서울대 목장은 일반 축산 농가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축산의 과학화를 통



평창캠퍼스 우사 안의 한우들(사진 왼쪽), 초지에서 풀을 수확하는 데 쓰는 대형 트랙터(오른쪽 위), 로봇 착유기의 젃소 착유 모습(오른쪽 아래).

해 소 사육의 어려움을 줄이고 소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한우 번식전문목장사업’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생산한 우량 송아지를 6개월간 튼튼하게 길러 개별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죠. 또한 사육 단계별로 영양소를 정밀하게 조절함으로써 사육 기간은 줄이되 육질과 육량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연구를 우리 목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육기간을 기존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 줄임에 따라 1마리당 23만원 정도의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어요.”

‘젃소 청정육종핵군목장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업이다. 한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품종이지만, 젃소 특히 홀스타인 품종은 미국·호주·캐나다 등 거대 낙농 국가에서도 대규모로 사육한다. 때문에 이미 축적된 해외 연구 성과를 발판삼아 새로운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도 쉽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훨씬 크다.

모교 목장은 더 우수한 젃소를 원하는 개별 농가와 우량 종모우 생산 및 가축 질병 청정화를 원하는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미국·캐나다산 초우량 수정란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다. 대리모를 통해 수송아지를 낳으면 정부 사업단에 반환하고, 암송아지를 낳으면 모교 목장에서 기른다. 목장의 모든 소를 수정란 이식 소로 교체해 자체적으로 최상급 송아지를 생산, 축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금까지 18차

레에 걸쳐 젃소 수정란을 이식했고, 30여 두의 암송아지를 생산했다. 교체율은 35% 수준. 5년 안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젃소가 하루 30kg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는 데 비해 우량 젃소는 40kg 이상의 원유를 생산한다.

2050년 탄소 중립 시대의 실현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김경훈 모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가 호흡챔버를 이용하여 소의 방귀, 트림 등 배출 가스를 일괄 채취해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보상 체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 평창캠퍼스 목장이 테스트 베드(test bed)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재투자 부족·시장 변동성 난제

그러나 풀어야 할 난제도 없진 않다. 모교 목장은 총 600두 규모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한우는 협력업체 ‘카길’의 위탁 소를 포함해 현재 140두, 홀스타인은 130여 두에 불과해 총 300두에 못 미친다.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셈. 김희웅 수의사는 “투자가 부족해 어렵다”고 말한다.

“평창캠퍼스 목장 설립 당시부터 사육동물 확보를 위한 투자가 미흡했습니다. 소와 닭 모두 합쳐, 목장에서 매년 약 10억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마저도 70% 정도만 재투자되는 실정이죠. 불안정한 원유 시장의 영향도 큼니다. 최고급 원유를 생산하고도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속칭 ‘원유 쿼터제’ 때문에 납품에 어려움이 많아요. 서너 해 전엔 원유생산량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젃소를 줄이기까지 했죠. 지금은 운송비 부담을 감안해 값을 깎아 횡성 소재 유가공업체인 ‘서울F&B’에 납품하고 있어요. 흰 우유보다 요구르트나 딸기·초코 우유 등 가공유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도 강해져, 안타깝게도 서울대 목장우유는 생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창캠퍼스는 최근 산학협력동에 치즈 가공시설을 유지했다.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직접 조달, 가공함으로써 원유 쿼터제와 흰 우유 소비 감소의 이중고를 슬기롭게 타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들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동문 서비스1: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 고
	서 울	경 주	지리산	설악산	
객 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 고
객 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 원/일)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2-571-8100

- 서드에이지 :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055-530-8100)

- 에다함상조 :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1566-6644)

엠배서더 호텔 그룹

구 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	10%	15%	5%	02-567-1101
노보텔 엠배서더 독산	10%	10%	5%	02-838-1101
경원재 엠배서더 인천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15% 최대 16인, 식음 이용 불가 행사장 대여에 한함	032-729-1111
이비스스타일엠배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엠배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엠배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엠배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작업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쉐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

항목	제공특전	비고
웨딩	상시메뉴 5% 할인 , 음/주류 20%할인 - 웨딩카 픽업 서비스	성수기 토요일 12시 제외
연회&가족연	식료 10% 할인 (단, 조식 5%)	출장연회 포함
레스토랑	뷔페식당: 식료 15% 할인(단, 12월 10% 할인) 일식당: 식료 10% 할인 - 중식당: 식료 10% 할인 라운지바: 음주류 15% 할인	조식 제외
피트니스	회원권 신규 가입 5% 할인	회원제 운영
스파	르스파 10% 할인	
객실	디럭스룸 150,000원 (조식 1인당 25,000원 별도) 디럭스룸 이외 객실 타입은 별도 문의 요망	실내 수영장 무료

※ VAT 포함가, 객실 특전은 2020년 12월 만료,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2-532-5000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80,000	100,000	110,000
스탠다드 패밀리티트윈/디럭스더블	242,000	87,000	110,000	120,000
디럭스패밀리티트윈/온돌	264,000	94,000	120,000	13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1년:1/1~2,2/10~13,2/27~28,7/16~8/21,9/17~21,10/8~9,12/24~25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 실: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카페 모리나리 (이태리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단체 제외)

※ 예약 및 문의 : 02-771-1808 (서울 중구 소공로 29 중석빌딩)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필경재(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동문 서비스2: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5491,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의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031-810-6383	건강검진 20~30% 우대
제천 명지병원	043-640-8450/8451	비급여진료 10% 우대
인천사랑병원	032-457-2800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 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서울직십자병원	02-2002-8777	장례식장 10% 우대, 일반진료비 10%
차음건강센터 삼성분원	1800-7750(내선1번)	일반검진 제외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경조 서비스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 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58,000원	58,000원		

1 신청 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 전화 02-702-2233

2 입금 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3 배 송 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모바일카드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회원가입 필요)
*모바일 회원우대증을 이용하시면 카드 제작비 및 발송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실물카드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02-702-2233)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추위 녹이는 장학금 온정

>>1면에서 계속

어려운 한 해였지만 꾸준히 장학금을 보내 온 이들 동문의 기부 의지는 한결같았다. 이 병훈 동문은 아시아 유학생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매해 1,200만원씩 기부하고 있다. 류명준 동문은 작년 두 차례 기부로 2,000만원을 조성했다. 손경희 동문은 총 5,000만원 기부를 약속하고 3년간 3,000만원을 보내왔다. 박대선(조선공학82~86) 동문도 10년간 5,000만원 기부를 목표로 3번째 기부를 마쳤다. 2020년 마지막날엔 변영삼(금속공학77~81) 동문이 500만원, 김원삼(AIP 15기) 동문이 3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한규택(원자핵공학73~77) 동문은 200만원, 김현철(사법87~91)·양승오(의학75~81) 동문은 각각 1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또 류한수(화학생물공학01~08) 동문이 10만원, 윤광선(의학68~75) 동문이 9만원을 기존 기부금에 보탰다.

2·3월 행사 안내

*동문님들의 건강을 위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소독과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사가 갑자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경우, 참석인원이 제한됩니다.
*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02-702-2233, 02-879-8204

2월 수요특강 (SNU사수회 : 네 번째 수요일 개최)

일 시 : 2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서울 마포구 도화동,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강 사 : 신각수 전 주일대사
강의주제 :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참가 비: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도서 제공)

3월 동문 등산대회

일 시 : 3월 6일(토) 오전 10시
집합장소 :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 앞
등산코스 : 정문 매표소 - 동물원 - 숲속 저수지 - 북문 입구 - 동물원 - 원점회귀
소요시간 : 3시간 30분 소요 예정(약 9km)
참가인원 : 50명 내외(선착순)
신청방법 : 2월 25일(목)까지 접수 (이름, 단체, 연락처 기재)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or.kr
참가 비: 2만원(중식 및 선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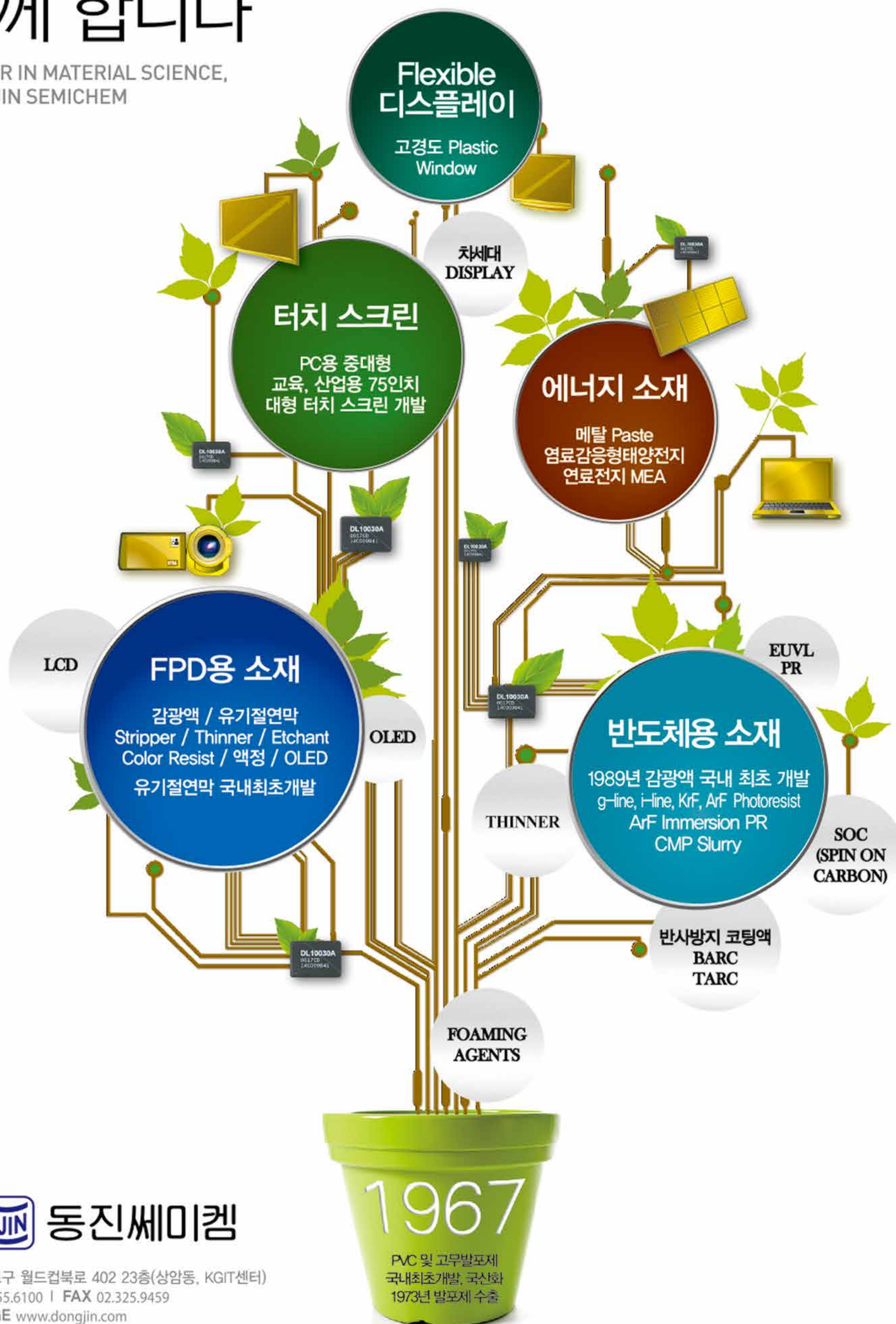
3월 조찬포럼 (SNUA이목회 : 두 번째 목요일 개최)

일 시 : 3월 11일(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강사 및 주제 : 미정
참가 비 : 5만원(조찬 및 도서 제공)

3월 수요특강 (SNUA사수회 : 네 번째 수요일 개최)

일 시 : 3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서울 마포구 도화동, 5호선 공덕역 8번 출구)
강 사 : 안종배 한세대 교수
강의주제 : 코로나19로 인한 문명 대변혁과 미래 변화
참가 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및 도서제공)
*조찬포럼은, 참석 못한 동문들을 위해 추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EADER IN MATERIAL SCIENCE,
DONGJIN SEMICHEM



동진세미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23층(상암동, KGIT센터)
TEL 02.6355.6100 | FAX 02.325.9459
HOMEPAGE www.dongjin.com

8월부터 차 안 다니는 정문...기념사진 맘껏 찍으세요

>>1면에서 계속

이번 정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강준호 기획처장은 지난해 6월 학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의 취지를 공유했다. “그동안 사람이 아닌 차들이 정문 아래를 달리는 살풍경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왔다”며 차량 중심적인 현재의 정문 환경이 야기해온 문제점을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보행자가 지금의 정문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야 한다. 졸업생과 방문객이 차도에서 위태롭게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정문 안팎의 교통 흐름도 원활하지 못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에 조형물이 놓여 가용 차로는 사실상 2차선이었다. 정문 옆으로 학교를 빠져나가는 길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정문 부근에 강남순환도로 나들목이 들어선 후 차량 통행과 사고 위험은 더욱 늘어났다. 정문 앞에 신림선과 서부선 등 경전철역이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 환경을 정비해둘 필요가 있었다.

모교는 정문을 중심으로 광장을 조성하고, 정문 옆에 왕복 4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모교 진입차로를 2차로 확보해 병목 현상이 개선될 전망이고, 정문 앞 교차로에서 모교로 진입하는 동선은 좀더 직선으로 다듬어진다. 관악구청 방면에서 학내로 진입하는 버스 차로도 한 차선 늘리기로 했다.

안전 문제와 별개로 현재 정문을 둘러싼 환경이 학교의 상징인 정문을 권위적이고 고립된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는 아쉬움도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학내 건축으로는 드물게 초기 단계부터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준호 처장은 “지난해 6월 기획처에서 학내 공모전을 열어 새 정문 주변 환경의 콘셉트와 명칭 등의 의견을 받



작년 2월 졸업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인파가 관악캠퍼스 정문 앞 도로의 안전지대에 줄지어 선 모습.

았고, 학사위원회를 통해 학장단 의견을 모은 결과 대부분 정문 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전에 참여한 진사광(대학원18-20) 동문은 “흔히 ‘학교 앞에서 보자’고 말하듯 학교 정문엔 공공성과 장소성이 있는데, 지금의 서울대 정문은 공공장소보다 상징의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 같다”며 “도시의 랜드마크이기도 한 모교 정문에 공공성과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새로운 정문 풍경은 8월부터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모교는 정문을 시작으로 문화관과 행정관 주변까지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관 앞 잔디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보행자가 다니기 좋은 캠퍼스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강준호 처장은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분주한 시점에 굳이 공사를 해야 하는지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이 캠퍼스를 찾지 못하는 이시기가 어쩌면 우리 캠퍼스를 더욱 대학답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사람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바뀔 정문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박수진 기자

“상징성 큰 서울대 얼굴, 공모전 통해 의견 수렴”

사업 주관하는 강준호 기획처장

모교가 추진하는 정문의 변화는 관악캠퍼스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상생 효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강준호(체육교육 86-90) 기획처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사업 진행 현황이 궁금하다.

“지난해 4월 모교 기획위원회에서 사업기획안이 통과됐고, 도로변경안은 올해 1월 12일 서울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았다. 현재 광장 설계공모 입찰을 진행 중이며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을 통해 학내 의견을 수렴했는데.

“정문은 서울대의 얼굴로서 상징성이 큰 만큼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했다. 학생, 교수, 직원 등 300여 분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 학내 구성원들이 보행자 중심 캠퍼스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인상적인 아이디어는?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

“많은 분이 정문뿐만 아니라 정문과 미술관 사이 나무와 잔디까지 같이 묶어서 개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우려를 표한 분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주신 분께 장시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정문 자체는 변화가 없는지.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조형물인 만큼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문 앞 교통도 개선될까.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와서 좌회전 한 후, 서울대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꺾어지는 동선(각도)이 다소 완화된다는 점도 검토를 부탁드린 결과,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문을 시작으로 문화관과 본관 잔디밭 주변이 차례차례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정문과 문화관, 본관 잔디밭은 학교의 상징이자 중심부다. 캠퍼스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학내외에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이지만 연계성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 사업을 묶어 ‘문화관 재건축-지하주차장 신축-정문 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모니터링, 자문하고 있다.” -정문 인근에 벤처밸리 조성을 추진 중인데.

“모교 정문과 후문의 낙후된 고시촌과 낙성대를 AI 기반 벤처밸리(일명 S-밸리)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관을 재건축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서울대와 관악구가 윈-윈 하는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기에 경전철 서부선 학내 연장

을 추진 중이다. 서부선은 은평구와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서울시 최초안에 이어 관악구가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을 제안했다. 모교는 한발 더 나아가 낙성대 호암교수회관과 문화관을 거쳐 신림선(정문 앞 도입 확성)과 만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문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모교 단신

교원 8시간 초과 겸직 가능해져

모교는 최근 전임 교원이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의 20%인 8시간을 초과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우수한 기업인과 연구원을 모교 교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총장 허가시에도 주 8시간 이내만 겸직이 가능해 기업인 등의 교원 유치가 어려움이 있었다. 겸직 교원의 급여는 교내 근무 비율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AI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신설

모교의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를 전담하는 AI 산학협력센터(AI CIC)가 이달 모교 AI연구원(원장 장병탁) 산하에 신설됐다.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학의 AI 기술을 사업화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에는 네이버 기술혁신센터장과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서비스마케팅팀장 등을 역임한 함종민 인공지능연구원 부사장이 내정됐다.

공대, 일반인 위한 공학서적 펴내

공과대학(학장 차국헌)은 지난달 공학이 생소한 일반인을 위한 책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다’(창비)를 펴냈다. 공대 교수 21명이 참여해 딥러닝과 가상현실, 퀀텀닷 등 최근 주목받는 공학기술과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미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했다. 어려운 전문 용어와 전공 지식 등은 알기 쉽게 풀어서 썼다.

‘황우석 백서’ 연내 제작 추진

2005년 황우석 전 모교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정리하는 황우석 백서가 모교 교수의 주도로 연내 제작될 예정이다. 이준호(미생물80-86 모교 자연대학장)·홍성욱(물리80-84)·이현숙(대학원90-92)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등 자연대 및 의대 교수 일부와 박사과정 재학생이 참여한다. 연구 윤리 관련 학내와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해당 사건을 되짚어 정리하고 반연교사로 삼는다는 취지다.

규장각 소장 ‘고려사’ 보물 지정

모교 규장각(원장 이현희)이 소장한 ‘고려사(高麗史)’ 을해자본 2권과 목판본 2권이 보물로 지정된다.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핵심 문헌으로 연세대와 동아대가 소장한 고려사 목판본도 함께 지정된다. 모교가 소장한 을해자본은 권수를 모두 갖추지는 못했지만 1455년(세조 1년) 만든 금속활자 ‘을해자’로 제작, 현존하는 고려사 중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디지털 SNU 공헌단 활동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김혜란)은 최근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워진 오프라인 봉사 대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디지털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다. 재학생 공헌팀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립뷰마스크’를 개발하는 과정, 다국적 학생·교수·직원으로 구성된 ‘사눔다문화공헌단’이 제작한 ‘다양한 문화권의 연애문화’ 등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건설의 한계를 넘어선

Life Value Creator

경계없는 생각이 한계없는 미래를 만듭니다.

TAEYOUNG
태영건설

주거사업
고객을 생각하는 대사업의 디자인으로
앞선 주거문화 선도하다

개발사업
주거, 상업, 업무시설 및 도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다

레저사업
종합리조트부터 레이스 서킷까지
국내 레저문화의 가치를 높이다

건축사업
앞선 설계와 첨단 시공능력으로
건축미학과 가치를 창조하다

물사업
독보적인 수처리 기술로
친환경 미래를 만들다

환경/플랜트사업
뛰어난 역량과 앞선 기술력으로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다

토목사업
탁월한 기술력과 노하우로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기여하다

www.taeyoung.com

Life Value Creator
TAEYOUNG

Design, Detail, **DESIGN**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송혜민·홍정희 할머니

모교 학생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두 할머니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모교에 5억여 원을 기부한 송혜민씨와, 신탁 기부를 통해 7억원을 기부한 고홍정희씨다.

올해 78세인 송혜민 할머니는 동문 가족으로서 작고한 아들과 남편을 기리며 기부했다. 송 할머니의 외아들 도원석(화학공학87-91)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논문을 쓰던 중 2004년 돌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 도민석(상학57-61) 동문도 2015년 작고했다.

남편의 생전 뜻에 따라 송 할머니는 5억여 원의 재산을 아들이 다닌 화학생물공학부에 유증 기부하고 ‘도원석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아들의 이름으로 부자(父子)의 모교에 기부를 하게 돼 마음이 후련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2월 향년 87세로 별세한 고 홍정희 할머니는 일본에 거주하다 재일교



송혜민



홍정희

포 사업가였던 남편이 사망한 후 국내 요양원에 머물렀다. 사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통해 기부를 준비해왔다. 위탁자 생전에 금융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다 사후 계약대로 재산을 상속·배분하는 제도다.

평소 배움이 짧은 것을 한으로 여긴 홍 할머니는 생전 “젊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공부할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남겼다. 모교는 ‘홍정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휴먼스 오브 스누 • 마지막

휴먼스 오브 스누는 모교 재학생이 캠퍼스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페이스북(@Humans of SNU), 인스타그램(@humansofsnu_official)에서 다른 인터뷰를 계속 제공합니다.

“완벽주의 서울대생, ‘비워내기’ 필요해요”

-요즘 ‘비우고 있는’ 것이라면?



인문대 재학생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나 후회를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후회가 뒤늦게 물려왔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웃음). 결국 과거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더 고민해봤자 자학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머리를 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를 수 없

는 욕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완벽함에 집착하는 것?

사실 서울대생들이 많은 경우 완벽주의자일 거예요. 실수 하나에도 전전긍긍하고 인간관계에서 작은 트리블만 생겨도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비우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무언가를 가진 나를 사랑하는 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의 과업이 아닌가 싶어요.”

“친구들 알려주면서 공부했죠, 멋진 사람 되려고”

-본인에게 ‘멋있는 사람’의 정의는?

“배울 수 있으면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요. 사실 제 롤모델이 친누나예요. 공부를 할 때 누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누나가 항상 얘기해준 게,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공부해라’였어요. ‘많이 알려줘서 내 성격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면, 그건 네가 실력이 부

족한 거다. 너의 실력을 높이고, 남들이랑 같이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 배울 수 있으면서도 마땅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경영대 재학생

한호재 교수팀, 스트레스에 의한 기억력 저하 원인 규명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 하면 신경세포에도 이상이 생긴다. 치매 발병 초기 단계의 특징 중 하나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당질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과정을 최근 한호재(수의학83-87) 모교 수의대 연구팀이 밝혀냈다.

한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실험쥐)의 해마 신경세포를 고농도의 당질코르티코이드 환경에 노출시켰다. 실험쥐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핵 주변부로 축적되는 데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하게

만드는 ‘자가탐식’ 과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질코르티코이드가 자가탐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NIX’를 선택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NIX’의 발현이 증가하도록 조치하자, 당질코르티코이드에 의한 시냅스 기능 이상과 인지기능 장애는 억제됐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변화로 이어지는 한 과정을 규명한 셈이다. 연구팀은 ‘NIX’를 타깃 삼아 알츠하이머 질환 등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 고3’ 수시 결과…서울 출신 32.2%

모교는 2021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을 통해 총 2,591명을 선발했다. 정원 내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및 일반전형 2,427명,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로 선발한 164명을 합친 결과다. 총 875개 고교에서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일반고 학생 비중은 약 48%였다.

지난해 12월 28일 모교가 발표한 수시모집 선발결과에 따르면 2,611명을 모집한 모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 1만4,698명이 지원해 2,591명이 최종 선발됐다. 매년 수시에서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이 100명 안팎으로 모자랐으나 올해는 결원이 단 20명에 불과했다.

기존의 모교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자는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했다. 2021학년도 입시에 한해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를 맞추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코로나19로 학업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난해 고3을 위해 수시모집 지균 수능최저등급을 완화한 것이 이번 수시모집 선발 인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수시모집에서 모교 합격자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고교는 전국 875개교로 2014년 학생부종합전형 시작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3개교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 동안 합격생을 내지 못한 일반고 124곳에서

도 합격생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 합격생으로 보면 일반고 출신 비율은 지난해(50%)에 비해 줄어든 48.3%이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1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내에서 학교명이나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모교는 수시모집 합격생의 출신 지역 현황도 공개했다. 서울 출신 합격생은 전체의 32.2%로 지난해(32.6%)보다 소폭 줄었다. 광역시(26.6%) 출신 합격생은 지난해(24.5%)에 비해 늘었고, 시(36.4%)와 군(4.8%) 출신 합격생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박수진 기자

군복무중 우주기상예보모델 개발 재학생



모교 자연대 재학생 김경호(물리천문17입·사진)씨가 공군 복무 중 AI를 활용

우주 기상 변화를 파악하고 예보하는 모델을 개발해 최근 화제를 모았다. 태양 활동이 이야기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예측해서 항공우주작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예보모델이다.

어린 시절부터 물리천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씨는 중고생 시절 아시아-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와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받았다. 모교 재학 중 2018년 창설된 공군 우주기상팀에 지원, 합격 후 우주 기상 감시 임무를 수행해왔다.

김씨는 태양 활동이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켜 인공위성 무력화와 GPS 오차 증가 등 항공우주작전 수행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예보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미

국의 관측 위성이 촬영한 태양 사진들을 분석해 전 세계 지구자기장관측소가 측정한 Ap지수(지구자기장 교란지수의 평균값)를 수집했다. 군에서 독학한 AI 기술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고 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예보 모델을 완성했다.

공군 측에 따르면 현역 병사가 이처럼 고차원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오는 3월부터 실제 예보에 해당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전역한 김씨는 “공군 복무는 전공과 연계된 연구 경력을 계속 쌓을 수 있었던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에너지 절감 및 공장 자동화의 필수제품

인버터

**모든 인버터 및 시스템
솔루션제공**

- 인버터 적용 검토, 설계, 설치, 시운전
- 인버터 교육
- 인버터 트러블 조치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제공

- 에너지절감, 진단
- 현장검토, 설계, 제안

**인버터의
모든것 해결완료**

수배전반 및 전력감시

인버터 주변기기 제공

- 마이크로써지 및 노이즈필터 제공
- AC, DC Reactor 공급
- 신호 변환기 제공

(주)아이에스비

인버터시스템 · 에너지절감 전문기업

TEL : (031)479-2239(대) 2248~9 / FAX : (031)479-2238

E-mail : its007@empas.com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호계동) 대우디오밸리 632호



(주)아람인테크
www.aramjob.co.kr

“아람인테크는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 **인재 아웃소싱** (파견/도급) 전문기업 입니다”

신뢰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회사

Total Outsourcing

F&B 케이터링 / 단체급식 유통 판매/판촉 사무직군 컨택센터 물류 / 생산 시설관리



여기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당신이 늘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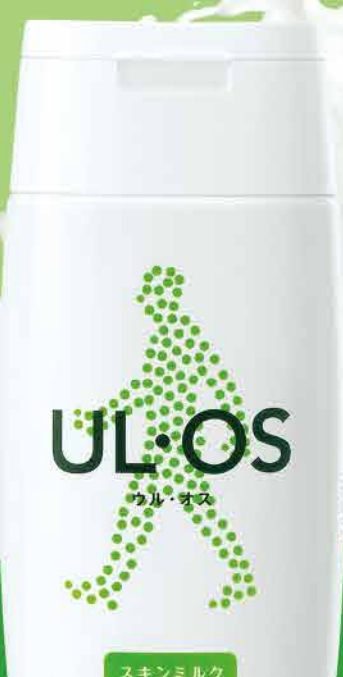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치과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0308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1(연건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TEL. 1522-2700 www.snudh.org

남 자 를 아 니 까
UL·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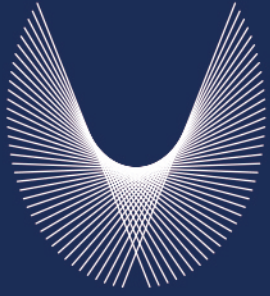


기본에 충실한 남자
시간을 아끼는 남자
자기관리에 철저한 남자

**우르.오스는
이런 남자편**

한 번에 착스며들어 하루종일 촉촉
우르.오스 올인원 스킨밀크

스킨밀크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만만한 기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만만한 기부 수혜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늦었지만,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 시절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받았던 장학금이었지만, 이제는 장학금의 소중하고 깊은 뜻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용기 내 전하고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내어놓은 귀한 장학금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힘을 얻게 되었노라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글. 최수완 국어교육과

꿈꾸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여러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고, 꿈을 이루기까지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생 때 할 수 있는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의 범위가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의학자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글. 육유정 의학과



[장학금 수기공모전 응모작 가운데 발췌]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60동 본부 명예의 전당

기부자 초청 음악회



소그림 맞춤형 캠퍼스투어



구 분	내 용	1백만원 이상 SNU Sponsor	1천만원 이상 SNU Sponsor	1억원 이상 SNU Honor	10억원 이상 SNU Gold Honor	50억원 이상 SNU President's Honor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감사장	●	●	●	●
	기념품 · 간행물 · 달력 · 생일카드	●	●	●	●	●
특별초청	입학식 · 개교기념식				●	●
	총장실 초청 감사패 전달식			●	●	●
	장학금수여식 · 캠퍼스투어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 전시회		●	●	●	●
명예헌정	특별기금 관리 · 기부자리포트			●	●	●
	기금명칭 부여			●	●	●
	명예의 전당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웨딩홀 이용(호암 및 연구공원)			●	●	●
	포스코 스포츠센터 할인			●	●	●
	서울대학교 프로그램 감면			●	●	●
	생원 기념품점 및 호암교수회관 할인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기한	10년	10년	10년	10년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등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기한	평생	평생
	의전서비스			기한	10년	평생
	근조화환			●	●	●
	근조기		●	●	●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할인			●	●	●

※ 상기 예우프로그램은 납입액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1666-2930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1-01]

성 명: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입학년도(기수): _____

약 정 금 액: ☐ 정기후원 매월 _____ 원

☐ 일시후원 일금 _____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공식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 발전기금(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신임 특별과정동창회장 인터뷰

은사 모시고 포럼 열어 공부하고 친목 다지고

SGS동창회장

방기석 (14기) 지비엠아이엔씨 대표

방기석(14기·사진) 지비엠아이엔씨 대표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SGS)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됐다. 방기석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시대에 동창 회장을 맡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하면서도 “동창회 발전을 열망하는 동문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 안았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 구로에 있는 지비엠아이엔씨 대표 집무실에서 방 회장을 만났다.

“동문들이 함께 비전과 통찰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우리 동창회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바쁜 와중에도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려면, 모임을 통해 실리도 챙겨갈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서울대 동문은 다들 지적인 호기심, 탐구욕이 왕성하잖아요.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강연이나 토론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 회장이 구상 중인 ‘SGS동창회 포럼’은 모교 환경대학원 교수진을 연사로 초청해 강연도 듣고 은사에게 인사도 드리는 동시에, 도시환경 관련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동문 간 친목도 도모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

다. SGS특별과정을 통해 미래도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웠다고 말하는 방기석 회장. 동창회원 중엔 도시·국토·환경·에너지·교통·조경·건축업에 종사하는,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가 즐비하다고.

“오세훈(7기) 전 서울시장, 정래권(13기)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저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승한(11기) 전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4대, 문국현(대학원77졸·7기) 한솔섬유 사장은 6대 동창 회장을 역임했죠. 2020년 12월 현재 37기까지 총 1,10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1995년 개설돼 26년을 이어오는 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창회장으로서 고심은 있게 마련. SGS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대학원은 관련 학부가 없는 탓에 대규모 회원을 묶어줄 구심점이 약한 편이다. 또한 특별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은 동창회에 대한 의향이 저마다 달라 조직을 꾸려가기 쉽지 않다.

방 회장은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젊은 동문들을 물색해 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원로 선배는

회장이 직접 예우하고 후배 기수들은 젊은 임원을 영입해 동창회 안으로 적극 포섭하겠다는 취지. 기수별 연결고리와 포럼 형식의 만남을 통해 친교의 기반을 닦으면, 등산을 비롯한 취미 모임으로 더욱 단단히 결속력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동문 선배들이 본을 보여야 수료 중인 과정생, 대학원생들이 바른길을 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라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배출한 우수 인재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죠. 모은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요. 동창회원들이 그런 희생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인은 각계각층의 리더로서 활약하는 만큼 소외계층의 입장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해요.”

방 회장이 대표로 재직 중인 지비엠아이엔씨는 1993년 설립돼 기상관측 장비 및 산업 환경 계측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강소기업이다. 국제공인

교정기관 ‘KOLAS’의 인증을 받았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기상 장비의 국산화에 크게 공헌했다. 유튜브에 ‘153웨더기상TV’를 운영한다. 나경태 기자



농생대동창회

수원캠퍼스에 AFP사업단지 추진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농생대동창회 제24차 AFP 추진위원회 화상회의 모습.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가 서병륜(농공69-73) 회장 취임 직후 출범한 아그로푸드 플랫폼(이하 AFP)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위해 옛 수원캠퍼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서 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농생대동창회의 미래 과제 중 하나로 “농생대의 탄생지이자 우리 농업의 요람인 수원캠퍼스를 동창회의 품으로 찾아오는 일”을 꼽으며 “전담추진위원회를 동창회에 구성하고 초기 활동자금으로 사재 5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캠퍼스는 서울대와 경기도 소유로 양분돼 있는데, 모교 소유의 부지 중 옛 본관 자리를 필두로 하는 ‘창업지원센터’와 강당 옆의 ‘융복합문화플랫폼’ 건물이 AFP 사업의 등지로 물망에 올랐다. 서 회장은 특히 융복합문화플랫폼 건물 절반가량 비어 있으니

AFP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터전으로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순심(농가정69-73) AFP 유통전문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24차 추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농생대 동문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 300명 모집 운동’을 제안했다. 1인당 30만원의 주식을 발행하여 책임감과 충성도가 높은 300명을 주주이자 소비자로 모집해, 지속 가능한 우수 국산 농산물 쇼핑몰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단순히 좋은 농식품을 소비하는 통로를 넘어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평창캠퍼스 입주를 진행 중인 AFP스마트팜 R&BD센터의 김철영(잠사81-85) 팀장이 로고 디자인의 시안을 선보이기도 했다.

Seegene, technology that protects our everyday

AI / Data Science /
Bioinformatics / SW개발 분야의
IT인재를 모십니다.

모두의 일상을 지켜내는 기술, 씨젠

씨젠은 IT와 B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 기반 분자진단 플랫폼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채용사이트(seegene.recruiter.co.kr)에서 부문별 공고 확인 후 지원 혹은 상시 지원

정치외교학부동창회

제롬 킴 IVI 사무총장 “코로나 백신 2024년까지 부족할 수도”

(국제백신연구소)

송강포럼서 강연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심윤조)가 지난해 11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송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제롬 킴(Jerome Kim)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은.

“보통 백신 개발은 5~10년이 걸린다. 1단계 50명, 2단계 수백 명, 3단계 3만~5만명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파악·검토하고, 이것이 입증돼야 판매 허가를 받는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러한 단계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과정을 단축시켰다.”

-안심하고 맞아도 되나.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제와 달리 백신은 건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효과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독감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열 변이성은 기존 독감의 10% 수준이라 단일 백신 접종만으로 새로운 균주에 대한 감염도 예방될 것으로 예측된다. 면역 반응은



송강포럼에 참석한 정치외교학부 동문들이 제롬 킴 IVI 사무총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백신 접종 시 항체가 생성되어 중화항체, 킬러세포 등이 바이러스와 결합하면서 이를 비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국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면역 작용이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연 감염으로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기존균-바이러스의 경우 감염을 통해 재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재감

염 실험에서 면역체계 생성으로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사람도 자연 감염을 통해 재감염 방지가 가능하다는 가설이 유력하다.”

-각국이 백신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안전하고 유효성이 입증된 백신은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 전체에 필요한 백신이 160억 회분임을 감안할 때 이는 글로벌 수요의 20% 수준으로 고령자,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이러한 추세로는 2024년까지 충분한 양의 백신이 생산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미국·유럽·일본 등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사전 계약하면서 나라마다 공급 격차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

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공급 격차의 예로 로타 바이러스 백신을 들 수 있다. 로타 바이러스 백신은 200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2009년 WHO의 접종 권고가 있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 60%의 아동이 접종을 못 받고 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누가 생산하며 어떻게 배분하고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될까.

“백신보다 더 개발이 어렵다. 단백질 항체 치료가 있지만, 중증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한번 처방받는데 1만 달러 이상의 돈이 든다. 한국이 단백질 항체 치료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분자 항체의 50%를 만들고 있으며,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를 보이는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경제 정상화 시기는 언제쯤.

“부유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다. 경제 활동을 가속하는 시기와 백신 접종 시기,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역 백신은 95%의 유효성을 가졌지만, 집단면역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90% 이상이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역시 집단면역을 위해선 약 70%의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심윤조 회장

제롬 킴 사무총장

AMP동창회

윤철주·김성권 동문 AMP대상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이경수)가 제20회 AMP대상 수상자로 윤철주(64기·사진 왼쪽) 우리조명 회장과 김성권(75기·사진) 씨에스윈드 회장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2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회장은 음극형광등을 생산 판매하여 축적한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뛰어난 기술과 우수한 인력을 융합, LED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0년 기준 2조원 매출의 우리조명그룹을 일궈냈으며 한국을 넘어 중국,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넓혀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에 공헌했다. 윤 회장은 또 세상의 모든 곳에 빛을 밝힌다는 뜻의 ‘사인프로젝트’ 취지하에 울릉도와 페루에 태양열 패널과 LED조명의 설치를 지원했으며, 독도 사랑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폭력 발전 단가를 낮춤으로써 친환경 발전정책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며, 전략적인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여 전 세계 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꽃동네 노숙 요양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문화 활동과 독거 어르신들의 생계를 돕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 또한 다하고 있다.

대표이사 유광열 [82入경제학과]

Your Best Credit Partner
SGI서울보증

더 힘차게 도약할 대한민국!
SGI서울보증이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대한민국—
그 믿음 그대로, 더 크게 나아갑니다
그 길에 SGI서울보증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水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일도, 학업도, 취업도, 육아도, 환경도,
풀려야 할 게 많은 세상
무엇이든 잘 풀리려면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빅카스D

빅카스F

빅카스DeCate-a

깨끗한 숨

따뜻한 숨

행복한 삶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따뜻한 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에너지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 개별난방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6.1% 감소

· 개별난방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7% 감소

· 황산화물질 배출 저감 청정기체 연료 전환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다
시
더
가
까
이



 **애경그룹**



서울대학교를 선도하는
산학협력 글로벌 리더.

FOR THE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가천대학교

- 최초 인공지능학과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 의대·한의대·약대 메디컬파워
- 국내 대학 유일 '하와이캠퍼스'



가천길재단
Gachon Gil Foundation

- 뇌과학연구 선도(11.74T MRI 개발)
- 인공지능 암·로봇수술센터
- 심부전·인공심장이식센터
- 응급 닥터헬기/닥터카(국내 최초)

가천대 길병원



국내 최초 길병원 닥터헬기





가천길재단
Gachon Gil Foundation

교육분야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하와이 가천글로벌센터, 가천창의팩토리, 신명여자고등학교, 가천인력개발원
의료분야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부속 동인천길병원, 가천대부속 길현방병원 연구분야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BRC(Bio Research Complex), 가천브레인밸리 언론분야 경인일보 사회·문화분야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봉사분야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가천메디컬라이온스클럽

새해 계획 달성 맨 내가 건 돈 돌려 받고, 보너스도 챙기고

목표달성 앱 챌린저스 화제
최혁준 화이트큐브 대표

50만 회원 자기 계발 도움 받아 ‘한 번 실천해도 보상’ 차별화

작심삼일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다. 결심을 실행할 때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작용이 불과 3일 만에 끝난다는 것. 수많은 범부들을 영어학원과 골프연습장, 헬스클럽의 ‘기부천사’로 전락하게 한 자연의 섭리다. 여기에 모교 동문 선후배가 뭉쳐 만든 스마트폰 앱이 도전장을 냈다. 스타트업 화이트큐브가 2018년 출시한 ‘챌린저스’다.

챌린저스가 작심삼일을 부수는 방법은 ‘돈으로 의지 사기’. 챌린저스 이용자들은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액을 담보로 걸고 영어공부, 아침 기상, 달리기 등의 계획을 실천한다. 증거는 공부한 흔적이 보이는 책, 운동화 신은 발 등의 인증샷이다. 한 번 실천할 때마다 낸 돈을 조금씩 돌려받는다. 약속한 기간 내 85% 이상 해내면 원금 환수, 100% 성공하면 보너스 추가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반문하겠지만 유혹이 많은 젊은 세대에서 제대로 입소문을 탔다. 출시 2년을 갓 넘긴 지난

12월 회원수 50만명, 누적 다운로드수 약 90만 건을 돌파했다.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챌린저스의 목표”라는 최혁준(에너지자원공학05-10) 화이트큐브 대표의 설명이다. 2020년 12월 24일 삼성동 한 창업지원센터의 화이트큐브 사무실에서 만났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사진 촬영시 잠깐 벗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 사람들은 후자를 택합니다. 급한 일은 당장 손해가 돌아오고 페널티가 있죠.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내일 해도 문제가 없으니 미루고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우선순위를 바꿔드리는 것이 챌린저스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계발에 있어 최 동문은 도가 튼 사람이다. 2012년 친구 세 명과 자기계발 동아리 ‘Being and Doing’을 만들었다. 넉 달간 개인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나중엔 500명으로 회원이 불었다. 시중에 나온 자기계발서를 섭렵해 노하우를 추출하고, 동아리 활동에 도입해 효과를 본 것만 모은 게 챌린저스의 지금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계획을 이루려면 돈을 걸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결과에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SMART)한 목표를 세워야 해요. 챌린저스에는 ‘토의 90점 달성하기’ 대신 ‘매일 토의문제집 풀기’처럼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목표만 있어요. 제한시간 안에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내야 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해 드려요.”

환급률이 무려 98%.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회사로선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 아이득 아닐까. “수익 구조상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다. “교육업체와 은행 등 제휴기업들이 챌린저스에 입점해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영어나 코딩 강의, 투자 프로그램을 꾸준히 완수하면 저희가 보상을 주는 식이죠. 임직원에게 금연이나 독서 등을 장려하기 위해 저희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기업제휴 매출이 12월부터 50%를 넘어섰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10억원을 투자한 알토스벤처스를 시작으로 최근 유수의 벤처캐피탈 세 곳에서 추가로 50억원을 투자받았다. “단순한 습관 앱으로 본다면 투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말에 확신이 었보인다. “건강, 교육, 자산관리까지 다루는 자기계발 통합플랫폼이자 인생 관리 서비스가 될 테니, 믿음이 가시면 투자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서 한 장에도 자기 성취적인 문구가 적힌 나라예요. 저희 서비스가 어울릴 겁니다.”

최 동문과 김민석(산업

공학07-15) 동문 등 화이트큐브 창립멤버들은 모두 대학 시절부터 창업을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최 동문은 공대 학부 시절부터 경영전략학회에서 활동했고, 공학과 경제학이 연계된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유명 영어교육업체에서 CGO(성장전략책임자)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창업을 꿈꾸는 모교 재학생이 2% 대에 불과한 가운데 고무적인 사례다. “학교 물품에 적힌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날 봐도 되나’ 싶으면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는 “서울대생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이 내겐 창업이었다”고 말했다. “모교 학생에겐 어느 정도 보장된 성공가도가 있는 만큼, 거기서 벗어나는 리스크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 대변하기도 했다.

“하버드에선 졸업하고 10년간 동창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 있대요.(웃음) 사회 초년에 조금 더 잘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 동료들과 비교하느라 ‘힘블(humble)’한 경험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만든 가치의 크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란 사람이 존재함으로써 시간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발전하는 개개인이 많아지고,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화이트큐브가 돕겠습니다.” 박수진기자

천년 이어온 노래 정가, 네이버 실검 1위 “소원 성취했어요”

(正歌)



MBC ‘트로트의 민족’ 6위
국악인 장명서 동문

전통음악 알리고자 출연 새로운 도전 응원해주길

“제 기사 끝에 이 영상을 넣어주시겠어요?”

장명서(국악13-17) 동문이 인터뷰 내내 흘깃 보던 태블릿을 기자의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유튜브에 업로드돼 있는 ‘여창가객 장명서 정가발표회1 - 달의 조각’ 영상이었다. 종이신문에 인터넷 주소를 그대로 쓰는 건 의미가 없으니, 온라인 기사에 링크를 삽입하겠다고 답하자 아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연예인이 되려는 것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음악세계를 넓히기 위한 도전이자, 정가(正歌)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소하던 그의 말이 두말할 나위 없이 진심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 출연해 최종 6위의 성적을 올리며 이름을 떨친 장명서 동문.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본회 홈커밍데이에선 한복을 곁게 차려입고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소속사 연습실에서 장 동문을 만났다.

“정가는 ‘아정(雅正)한 노래’라는 뜻으로, 가곡·가사·시조 등 심신 수양을 위해 지어진 선비의 노래입니다. 민간 성악곡의 총칭인 속가·속요와 구분 짓는 동시에, 일제 말 서구의 노래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에 맞서 우리 음악을 지키고자 붙여진 명칭이죠. 특히 가곡은 깊이 있는 노랫말과 완성도 높은 음악적 구조 덕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정가는 기원을 따지면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천년을 이어온 노래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어지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노래가 상아탑에 갇혀, 전공자가 아니면 듣지도 부르지도 않는 음악이 되어가는 것이 마음 아팠다. ‘서울대썩이나 나와서 뭐 하는 거냐’, ‘국악학도의 수처녀’, ‘그걸 노래라고 부르냐’ 등 일부 선배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방송에 출연해 트로트와 국악을 융합, 해금, 대금, 사물놀이 등을 선보인 이유다.

“인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소원을 이루긴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정가가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1위를 차지했거든요. 방송은 물론 여러 신문, 잡지에도 소개됐고요. 국악을 알리는 데 일조할 수 없다면, 방송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트로트 가수분들께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출연 동기는 너무 분명했어요. 트로트 붐에 편승해 정가를 홍보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내 가볍게 볼 음악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란한 강악조절과 치고빠지는 밀당을 특징으로 하는 트로트는 청중의 감정이 입이 쉽고 강렬한 음악이었어요. 제가 잘못 불러서 폐를 끼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장 동문은 2017년 모교 졸업 후 국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거듭해왔다. 창작 국악그룹 ‘동화’와 창작 가악그룹 ‘연노리’의 멤버로 활약했고, 2015년 제31회 ‘동아국악콩쿠르’에서 정가 부문 금상을, 2018년 박한결(국악15입) 재학생과 함께 출전한 ‘21C 한 국음악프로젝트’에서 은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 The-K호텔에 호텔리어로 근무하면서 음악 활동을 병행했다. 강준식(불문71졸·본회 상임부회장)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호텔의 갈라쇼, 디너쇼 무대에 섰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방송 출연은 장 동문이 찾은

돌파구이기도 했다.

“첫 방송 출연은 MBC 예능 프로그램 ‘오! 나의 파트, 나’였습니다. 유명 가수가 무명의 도전자와 함께 하모니를 완성하는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tvN ‘소사이터티 게임’에 출연했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해성(경영13-16) 동문이 다리를 놔줬어요. 학교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쿠스틱 캠프’에서 ‘Famous Fame’이란 팀명으로 같이 노래했었죠. 4년 내내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신은지(수학교육13-17) 동문은 그냥 가족 같고요. 서울대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학시절 추억을 묻자, 장 동문은 지도교수를 따라 해외에서 우리 국악을 선보였던 경험을 꼽았다. 국내에선 파분해하는 청중이 적지 않은 데 비해 외국에선 눈을 반짝이며 몰입한다고. 그 눈빛에서 국악의 가능성을 확신, 평생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음대 강의동에서 대학신문과 나란히 놓인 총동창신문을 자주 봤어요. 동문들 소식을 접할 땐 남 일 같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했죠.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그렇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우리 국악을 알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장명서’ 검색

나경태기자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ITY OF CRAFTS AND FOLK ART

Designated UNESCO
Creative City
in 2019



기업정신
- 정도경영
- 고객감동

핵심가치
- 변화지향
- 인재육성
- 지속적 성장

기업목적
- 글로벌기업
- 사회공헌

Since 1976

**미래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기업
그 중심에 삼호개발이 있습니다.**

2019.10	충청남도 건축상 최우수상
2019.09	표창장(한국철도시설공단)
2017.12	한국도로공사 표창(동반성장 추진기여)
2015.04	대통령 표창(고속철도 건설)
2014.06	한국도로공사 표창(우수전문건설업체)
2012.04	태국 노동부장관 우수사업장 표창
2012.03	기획재정부장관 표창(모범납세자상)
2009.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
2008.12	대통령 표창(고속도로 건설)
2006.12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건설협력 증진대상)
2005.12	국무총리 표창(고속도로 건설)
2005.0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이전 상장
2002.12	대통령 표창(고속도로 건설)
2002.0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KOSDAQ) 상장
2000.07	국무총리 표창(도로건설기술 개발)
1998.01	ISO 9001 인증 취득
1976.01	삼호개발(주) 설립

Samho
삼호개발

Samho Development Co., Ltd.
사업영역 : 토목/건축사업, 산업환경설비사업, 마스콘/공제사업, 조경사업, 건설기계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6 삼호빌딩 TEL : (02)2046-7700 FAX : (02)2046-7777
www.samhodev.co.kr

삼 호 씨 앤 엠 / 삼 호 코 넨 / 삼 호 그 린 인 베 스톱 먼 트



근하신년

HAPPY NEW YEAR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 외 교직원 일동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진료문의 1588-5700
www.snuh.org





성실한 기업 / 신뢰받는 기업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美和콘크리트(株)
Ⓚ 레미콘

미화콘크리트(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59 TEL. 02) 956-8112 FAX. 02) 954-7485

代表理事 會長 李 慶 泰

주택과 도시에서 행복할 권리
HUG가 지켜드립니다

고민은 들어주고 걱정은 덜어주고!

당신의 주도권을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날까 걱정 안 해도 돼서 안심이에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당당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남은 건물이 새롭게 바뀌니까 동네에 활기가 생겼어요”
도시재생금융지원





“건강검진 왜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일까요?”



믿을 수 있는 검진 결과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



스마트 검진 서비스



쾌적한 검진 환경



라이프 스타일 코칭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연계

“동문 의사들도 찾는 믿을 수 있는 검진으로
2021년 건강관리를 시작하십시오.”



SNUH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737) 강남파인애플센터 38~40층 T : 02-2112-5500 | <http://healthcare.snuh.org> | 유튜브 채널 : 닥터 스누지

서울대 모든 분야 공동 번영, 창업대학원이 밑거름



박원우
경영78-82
모교 경영대 교수

변화와 혁신 없이는 생존이 힘든 세상에서 대학은 어떤 변혁을 해야 할까? 만약 “들어갈 땐 1류이던 서울대 학생들이 나갈 땐 얼마나 성장해서 나가나? 종합대학의 장점 중 하나가 시너지 실현인데 서울대에선 대학(원)들 간 시너지가 일어나나? 매년 국가에서 수천억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사회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나?” 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고개 들고 자신 있게 응대할 수 있기 위해선 많은 변혁이 서울대에서 실현돼야 한다. 법인화가 이룩된 지 수년이 지났건만 계속 ‘장점은 없고 단점만 여전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장점인 자율성을 살려 스스로 변해야 한다.

대학혁신의 방향 중 하나는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교수와 대학이 하고픈 것을 하기보다는 고객인 학생과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것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에 필요한 수많은 혁신 중 하나가 창업교육조직의 신설이다.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창업교육과 지원’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우수 대학의 역할과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1975년에 39세이던 창업평균연령은 2015년에 29세로 나아가 2019년에 27세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기업 육성 시설)의 40% 정도가 대학에 기반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젊은 나이에 (대학졸업 후가 아니라 이미 대학 다니면서) 창업을 하고, 창업의 성공률이 그 사회의 발전과 직결되기에 창업을 가르치고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MIT의 경우엔 2015년 기준 창업관련 과목이 120개 제공됐고, 매년 수백개 기업이 학내에 창업된다. 2015년 기준 MIT 기반 기업이 3만개 이상이 존속했으며, 460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2,000조원 매출을 창출해 세계 10위 국

서울대 창업대학원(SNU SEI)의 필요성

선비정신 실현 & Global Trend에 부합한 대학운영	• ‘온고 without 지신’은 진정한 선비 정신이 아님. 그럼 대학 사회의 지신은 무엇? 지신의 대표적 글로벌 트렌드는 융합, 창조와 혁신, 창업. • SNU도 융합대학원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이미 설립했고, 이제 SNU SEI를 준비. • 대학은 세상변화의 선도적 주체여야 함. 자부심에 안주하고 환경변화에 부응도 못하면 낙오함.
법인화의 장점 능동적 활용	• 법규와 규제에 기반하여 외부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입장에서 벗어나 대학과 사회발전의 방법을 능동적으로 추구. • 학생과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동문 후원에 의지하는 (20C형) 방법에서 벗어나 성공 창업의 과실을 제도적/지속적으로 서울대 발전기금에 연계/증대하는 (21C형) 방안 추구.
젊은이의 의미와 꿈 실현을 지원	• 창업은 ‘영리(for profit)’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가치 증진을 위한 ‘비영리(non-for-profit)’도 포함: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 • 젊은이의 ‘의미 있는 삶’ 및 ‘꿈 실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 비록 자체 학위는 석사부터이지만, 학부생 포함 서울대 구성원 전체의 창업을 지원.
지속적 경제발전과 극일의 지원	• 그간의 경제발전으로 일본을 바짝 추격하여 극일의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지속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근자의 일본과 같은 추세(성숙 → 쇠퇴)에 빠지면 절대 안 됨. • 서울대(가 동경대처럼) 학생들의 안정성 추구(고급 공무원과 대기업 선호)가 지속되면 극일이 불가함. 우수한 젊은이들의 도전의식과 벤처정신(기업가 정신과 혁신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

SNU SEI의 정신(철학): 혁신 기반 융합과 실행으로 가치창조

융 합	가 치 창 조 ¹⁾	실 행
• 성(Castle : 연구실, 학과, 단대) 문을 열고 시너지 추구 •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	• 창업: 가치와 지식이 조직화 되어 실제 사회발전에 연결되게 하는 것 • 기업가 정신: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혁신적 사고와 의지	• Knowing-Doing Gap 감축 • Input 중심에서 Process&Output 중심의 성과 지향²⁾

혁신(Innovation) 기반

1) 창업: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혁신과 융합에 기반한 가치창조로 사회공헌의 꿈 실현
2) 우수 학생의 입학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고, 그 결과 사회발전에 얼마나 공헌 했는지를 더 중시

- **융합과 실행정신에 바탕한 가치창조는 공급자 교수의 사고행동 및 대학 제도/구조의 혁신을 기반으로 함**

가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고자 한국 정부에서도 ‘창업학’을 공식 학위 명으로 인정하고, 약 10년 전부터 국내 대학에서 창업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 왔다. 창업은 결코 아이디어와 의욕만으로는 성공 못하기에 98% 이상이 실패한다. 창업하는 방법과 성공하기까지의 제반 어려움을 알아야 성공 가능성이 커지기에 창업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연고대도 학

생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KAIST 또한 수년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창업대학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러한 창업 대학원과의 연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 서울대는? 정부와 사회의 권고·요구와는 달리 그간 계속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비록 공대와 경영대에서 지난 5년간 운영된 창업관련 과목이 17개 있었으나, 종합대학의 수요에 부응치 못했고, 개별 단과대나 센터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음이 입증되었다. 창업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은 서울대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서울대가 수동적으로 밀려서 나중에 할 것인가, 아님 늦었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노력을 시작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서울대 평의원회가 ‘창업지원을 위한 학교시스템 재정비’를 정책과제로 마련하여 연구가 진행됐는데, 내부 13개 단대(원)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에 더

하여 23명의 외부 자문위원팀이 더해진 ‘연구단’이 형성·운영됐다. 대학 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더하여 평의원회는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서울대 내 SNU SEI(Schoo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가칭 서울대 창업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전하고 그 설립추진단 형성을 건의했다.

오세정 총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대부분 서울대 내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그렇지만 새로운 교육단위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 내외의 많은 분들이 본부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SNU SEI의 필요성과 그 정신(철학)을 정리하면 가운데 표와 같다.

창업은 ‘장사하여 돈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혁신과 융합에 기반한 가치창조로 사회공헌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비영리(not-for-profit)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도 당연히 창업의 대상, 꿈 실현의 방안이다. 따라서 기초-응용학문의 구분 없이 서울대 모든 학문 분야에서의 창업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적 사고와 의지 즉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창업대학원을 신설·운영하는 것은 서울대 모든 대학(원)의 합의와 협동을 필요로 한다. 특정 학문 분야의 발전 위한 다툼(zero-sum)이 아니라 서울대 모든 분야의 공동번영(positive-sum)을 위한 것이고, 대학원으로서의 설립을 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부교육의 유지와 공존을 위함이다. 지행합일 추구정신으로 단지 ‘아는 것이 힘’에 그치지 않고, 알고 행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서울대 학생과 교수 나아가 졸업생에 의하여 사회발전(인류사회의 가치증진)의 성과가 얼마나 올바로 이룩되었는지 평가받는 즉, 과정과 성과 모두를 중시하는 정신(철학)이다.

지난 한 해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KITAS 산학연정보(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사람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IEEE¹⁾, SAE²⁾ 우리나라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행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 원단

KITAS 산학연정보(주) 임직원 일동

1) IEEE는 기술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는 국제전기전자 공학회입니다. 2) SAE International은 모빌리티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자동차공학회의입니다.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AS Info. & Co., Ltd.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총신이사)

동문맛집

정통 파스타에 와인 한 잔, 디저트로 타로점 어때요

정예슬 타로와인바 서랍 대표

타로와인바 ‘서랍’의 어둠은 포근했다. 테이블마다 놓인 스탠드 불빛이 그 끝을 뭉뚱그려 빛과 어둠의 경계가 모호했고, 코르크 마개가 열리는 경쾌한 소리에 이어 달콤 씹싸름한 와인 향까지 스며들었던 것. 이런 분위기라면 어떤 점괘가 나오든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정예슬(동양화10-16) 서랍 대표가 살바도르 달리의 타로 카드를 들고 맞은편에 앉았다. 캔스레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난해 12월 21일,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었다.

“저희 가게는 2018년 겨울 문을 열어 최근 두 돌을 맞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타로점을 보려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거칠게나마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조망하게 돼요. 프리포즈 이벤트를 위해 서랍을 통째로 빌렸던 커플이 기억에 남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처음 만나 사귀었대요. 신기하고 재밌죠.”

2017년, 우연히 본 타로점에서 큰 위안을 받았다는 정예슬 동문. 친구한테서 타로카드를 선물 받은 김에 내치 독학을 시작했고, 빠르게 실전에 돌입했다. 대학원 재학 중 선보인 오픈 스튜디오에서 관람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타로카드를 들고 나섰던 것. 운명이란 이름은 두말할 나위 없이 호기심을 자극하



서랍 인스타그램 QR코드

게 마련이어서, 정 동문의 부스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용하다’,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알았나’ 등 호평이 쏟아지자 자신감이 붙었다.

“취미 삼아 공부한 타로가 생업의 일부가 됐어요. 처음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서울대 친구들 넷이서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던 공간이었어요. 사무실 겸 쇼룸으로 쓰려고 했는데, 창립 멤버들이 각자 새로운 진로를 찾아 흩어지면서 지금의 서랍이 됐죠. 일부 공간은 작업실로 만들어 미대 동문들과 같이 쓰고 있고요. 개업하고 더 많은 선배, 후배들과 친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땐 얼굴만 알고 지냈는데 한번 놀러 오라는 말을 흘려듣지 않고 꼭 찾아주셨어요. 든

든한 버팀목이죠.”

졸업 후에도 모교 율타리 안에 있는 만큼 정 동문은 동창회 활동에 관심이 많다. 미대동창회 간사들의 회식 장소로 서랍을 제공했고, 2019년 열린 ‘서울미술나눔 자선 경매전’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자선 경매전에서 본회 ‘서울대와 와인’ 몬테스 알파 블랙라벨을 맛보곤 그 자리에서 서랍의 와인 리스트에 올렸다고. 주량은 소주 반병에 불과하지만 100여 개의 와인을 직접 시음한 후 30여 가지를 추려 선보인다. 수시로 와인 리스트를 재정비하는 건 물론이다.

“타로도 와인도 좋지만, 한번 온 손님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선 음식 맛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요리 실력이 출중한 고민정(동양화10-14) 동문의 도움이 있죠. 개업 전 매달 새로운 메뉴를 개

발해왔고, 손님상에 올려 반응을 살피며 초기 메뉴를 구성했어요. 서랍의 시그니처 메뉴 ‘양송이 풍뎡뎡’이 그중 하나입니다. 올리브오일에 고기소를 짭채운 양송이를 올린, 스페인식 냄비 요리예요. 또 다른 대표메뉴 ‘바질페스토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학교 ‘알마(Alma)’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제 사촌 동생이 개발했습니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실력인데, 저처럼 자유롭게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2020년 10월부터 같이 일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을 딴 ‘서랍 속 까르보나라’도 빠지면 섭섭하다. 부담 없는 가격에 고소한 풍미를 낸 정통 파스타를 맛볼 수 있다. ‘트리플 머쉬룸 파워’, ‘치즈번 벅 시금치 에그팟’, ‘보들보들 감자 그라탕’ 등 식사 겸 안주 메뉴와 와인예

들어 먹는 치즈 모듬 및 디저트류도 준비돼 있다. 제철 재료와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 시즌에 따라 꾸준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서랍은 코로나19로 인해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되면서 완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녁에 하루 4팀까지만 받는 대신 1인 손님을 대상으로 평일 낮 시간 영업을 신설했다. 배달 음식에 지친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한가로이 컵바람을 쏘고 간다고. ‘숨어서 열린’이란 인스타그램 계정의 수식어에 걸맞게 가게 바깥으로 일체의 홍보물을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아트워크에 예술공간으로 선정됐다. 동양화 동문 그룹 ‘오색빛깔’의 원데이클래스와 동문 출신 연극단 ‘극단적극단’의 낭독극 ‘썬’이 서랍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 서랍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여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음식이나 와인 또는 사람이나 분위기도 될 수 있죠.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도 있죠.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순간, 속에서 동문 여러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총 15석 규모로 서울대입구역에서도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예약 필수. 주차 불가. 월요일·화요일 휴무.

나경태기자
서울 관악구 청룡1길 19 301호
070-4064-7075

Think Different!
Do Excellent!

JB WAY

행복

우리는 건강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고객에게 편안한 일상을 제공합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따뜻한 정이 깃든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그린나래봉사단'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랑 가득한 나눔 릴레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부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JB 주식회사 | JB 에너지 | 중부재단

www.jbcorporation.com | www.jbenertek.com | www.jbfoundation.or.kr

화제의 동문

유튜버

(12) '입금완료' 이민수 (경제05-10) 동문

간식 만들며 툭툭 던지는 날카로운 통찰

이민수(경제05-10) 동문은 ‘입금완료’라는 채널명으로 과자, 요리, 장난감에 얽힌 일상 이야기를 풀어 유튜브에 업로드한다. 2015년 12월 개설돼 총 80여 편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2021년 1월 8일 현재 19만7,000여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살찌기 교실’, ‘밀착취재 간식은 지금’, ‘나의 햄버거 답사기’ 등에는 뭘 먹어도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요즘 시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 동문의 ‘마이웨이’ 식성과 독특한 레시피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어른이 돼도 철들지 않는, 소위 ‘초딩 입맛’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모양새.

이 동문은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시작했고, 요리를 하면서 머리를 스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쿠키, 타르트, 케이크, 햄버거, 탕수육 등 갖가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재생되는 동시에 요리와 관련된, 또는 요리와 무관한 코멘트가 마치 ‘의식의 흐름’처럼 자막으로 깔린다.

정성 들여 만들었지만 조금 어설픈 음식의 비주얼이 외려 친근함을 자아내고, 근접 촬영된 영상의 독특한 시선과 무심한 듯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코멘트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삶은 달걀노른자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별모양을 만들다 실패하자 ‘별은 원래 별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하거나 달걀노른자와 흰자를 떼어내는 과정의 어려움에서 ‘살 빼기 힘든 이유’를 찾아



내는 식이다. ‘실험완료’에선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데 도전한다. 첫 실험은 후루트링 우유 만들기. 어린 시절 우유에 말아 먹던 후루트링과 후루트링을 다 먹고 남은 우유의 단맛에 착안, 아예 ‘후루트링 우유’를 만들어 보는 실험이다. ‘왜 굳이...’ 하는 시각을 잠시 접어두면 불수록 묘하게 빠져든다. 요리뿐 아니라 일상을 담은 영상에도 이 동문의 코멘트는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 동문의 영상은 블로그에서 시작됐다. 수집한 장난감을 자랑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장난감을 찍은 사진도 무척 마음에 들었고, 내친김에 동영상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입금완료’라는 닉네임이자 채널명은 장난감을 하도 많이 사서 이제 그만 사야지, 했는데 어느새 또 사고 입금을 끝냈더라, 하는 해학적인 각에서 비롯했다.

최다 조회 수 영상은 82만 건을 기록한 ‘와사비 햄버거 만들기’.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보게 된다’, ‘거칠지만 과장하지 않는 우아한 유머를 갖추고 있다’, ‘자꾸 웃음이 나고 귀엽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화제의 책

‘반소매 입고 안 춥나?’

호스피스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반팔 셔츠를 입고 병원을 찾은 아들의 걱정부터 입박에 냈다. 때로는 배고플까, 잠 못 잘까 염려하는 말을 앞세웠다. 말기 암과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을 앓으며 독한 약기운으로 흐린 정신에도 그 말들은 또렷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돌이켜본 아들은 새삼 느낀다. “이 세상에 내게 이리 말할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책 ‘엄마의 마지막 말들’은 그 아들, 박희병(국문75~79)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어머니 입김연씨의 말들을 기록한 책이다. 고전문학과 예술사를 연구하며 연암 박지원과 문인화가 이인상 등에 대한 저서를 낸 그는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 1년간 휴직하고 간병에 매달렸다. 사모곡이자 간병 일기이고, 죽음의 의미와 호스피스 완

화의료의 현실까지 짚어낸 인문서다.

길어야 두세 문장, 혹은 외마디 외침. 단시(短詩)와 같은 어머니의 말에서 인문학자답게 의미와 은유를 찾아 해독하고 주석을 붙였다. 인지장애를 앓는 어머니의 말은 때때로 두서없고, 시공간을 넘나들었다. 상경한 지 오래여서 한 동안 쓰지 않던 고향 사투리도 병상에서 돌아왔다. 남들은 그저 맥락을 잃은 발화로 치부했지만 아들은 그 말들에서 당신이 지금 머무르고 계실 어딘가를 헤아렸다.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소녀 시절 고향으로 돌아가 계시리라 생각했고, ‘연탄불 갈아야 한다’ 느닷없는 외침을 듣고선 자다가도 일어나 가족을 위해 연탄불을 갈던 어머니의 새벽으로 함께 돌아가서 뒤늦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되새겼다.

‘춡다. 옷 더 입어라’, ‘돈 있나? 용돈 좀 주까?’, ‘저 밖에 풀이 참 잘 자란다’.



엄마의 마지막 말들

박희병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창비

부단히 주변을 관찰하고 가족을 챙기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선 살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안도와 행복감을 얻었다. “일반인의 눈에 호스피스 병실의 환자들이 생활도 없고, 그저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편견이다. 그분들에게도 나

1년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름의 생활이 있고 남루한 삶이지만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그의 말이다. ‘고마이 손 잡고 집에 가자’던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웃게 해드리려 초로의 나이에 덩실덩실 춤도 쳤다. “엄마가 아파도 인생은 흐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환자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보호자는 현실과 싸워야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간병인 제도 등에 대한 단상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어머니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신 307일간, 규정에 따라 여섯 곳의 병원을 옮겨 다녔다. 다른 환자들처럼 어머니가 그저 항정신성 약물에 취해 있게 두지 않으려는 생각이 의료진과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 보호자와 주치의 사이 ‘협치’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처치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호스피스는 삶의 본래적 과정과 단절되지 않았다고 각별한

윤리의식도 강조했다.

1년간 지켜본 어머니의 마지막은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라는 물음을 남겼다. 박 동문은 삶만큼 죽음도 “외롭되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맞겠다”며 이제부터 원하는 죽음의 방식을 골똘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학자 아들의 공부길을 평생 지켜봐준 어머니다. ‘내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안됐다’며 간병하는 아들을 염려하다가도 ‘희병이 가가 정말 공부 잘하네’라며 자랑스러워 하셨다. 동숭동 문리대에서 함께 모교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노학자는 다짐한다. “이제 나는 지켜봐주는 엄마 없이 남은 시간 동안 공부길을 가야 한다. 엄마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존음을 아껴 공부하려 한다. 그게 엄마의 뜻일 것이다.” 박수진 기자

BOOKS

큰 나무 큰 그림자

김경동(사회55-59) 모교 명예교수 외 푸른사상



남풍회 회원들의 산문집. 김경동, 이상일, 김명렬, 이익섭, 김상태, 정진홍, 김재은, 광광수, 김학주, 정재서, 이상

옥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11명의 석학이 학문과 인생의 연륜을 바탕으로 심오한 사색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인문학적 정신에서 우러나온 깊은 사색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가진 원로 교수들의 이야기는 잠언과도 같은 무게감을 주고 있다.

나의 학문 나의 삶 1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역임 /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모교 명예교수의 수가 1,000명을 넘었다. 학문을 위하여 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한 이들의 삶은 진정,

서울대가 걸어온 길이자 대한민국의 발자취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기록물들은 학문을 탐구하는 삶이었기에 뒤따라오는 학자에게는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학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권에는 황경식·이인규·최종태·이흥식·최대권 명예교수의 학문의 길, 삶의 길을 담았다.

슴베의 사계

오세운(의학59-65) 수필가 / 재남

오세운 동문의 작품 속 삶은 여느 소설보다 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품고 있다. 심미적이고 치밀한 문제로 반세기도 한참 더 지난 기억을 마



습득할 수 있기에 젊은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의 수필집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뒤져도 없는, 사전 속에 음전하게 들어앉아 있는 순수 우리말들과 꽃 이름, 새 이름들이 종종 등장한다. 우리말 사전, 동식물 도감을 옆에 두고 공부하듯 읽어 보자.

한국 외군의 외교 군사사

황병무(외교60-64) 국방대 명예교수 박영사



군사력은 내우(변란)와 외환(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능력이다. 한국에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현재까지(1885-1893년, 1949년 6월-1950년 제외)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다. 외국차용이 한국의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친 득과 실은 무엇인가? 본서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저술이다. 내우가 외환을 불러오고 외환이 내우를 더욱 키운다는 내우외환의 연계정책을 분석의 틀로 이용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임오군란 이후 대한제국의 종말 등 6가지 사례를 분석했고, 2부는 외군주도의 광복(분단)과 6·25전쟁(정전)을 다뤘다. 3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평화보장력, 포기(철수), 연루(북핵, 사드), 제한(핵, 미사일 개발)의 시각에서 다뤘다.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정병석(무역72-76) 한양대 석좌교수 매일경제신문사

거짓말과 편 가르기, 혐오와 분노, 갈등과 폭력은 대한민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 됐다. 국력의 갈림길에선 지금 정병석 동문은 “대한민국 선

치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인 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공한 자신의 인생을 내세워 가르치진 않지만 읽는 동안 많은 것을



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현대에 남아 있는 신뢰와 법치 미흡 문제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문제제기도 의미 있다.

한 끼 식사의 행복

김석동(경영73-78) 전 금융위원장 김영사



오랜 세월 금융과 경제전문가로 살아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발견한, 속도 든든하고 주머니 사정도 든든하게 할 서울의 진짜 맛집. 이 책에서 소개하는 서울의 식당들은 저자가 오래도록 즐겨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검증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라 신뢰할 만하다. 노포로, 찾아가기에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기도 하고, 낡고 허름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한 번 맛보면 평생 잊지 못하는 맛집이다. 또한 소개하는 메뉴들은 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청국장찌개, 짜장면, 짬뽕 등 대부분 1만원을 넘지 않는 단품메뉴이다. 누구든지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28종의 메뉴와 165 곳의 식당을 소개한다.

김일성, 1925~1945 중국과 소련에서 무엇을 했나

박승준(중문74-78)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 유나미디어



한국의 경우 헌법전문에 상해임시정부로부터 법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북한은 김일성이 이끌어온 항일 빨치산 활동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 책은 앞으로 남북한 간의 정통성을 따질 때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지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의 실체, 즉 1925년부터 1945년까지 20여 년간 중국의 만주 일대와 소련의 연해주 일대에서 어떤 항일운동을 벌였는지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 그 사실을 추적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저술한 재미 한국인 학자 이정식과 서대숙 교수의 저서, 동북 항일련군 사령관 저 오바오중(周保中)의 항일투쟁일기, 김일성 본인의 회고록 등을 비교했다.

상식타파 세계사 1

이승엽(사법91-96) 변호사 / 좋은땅

역사 속에서 벌어진 세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 묶은 책.

이 책은 신부 경매를 통해 혼인을 했던 고대 바빌론의 결혼 풍습,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이슬람을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 사이의 혈연관계, 영토 없이 더부살이하는 국가인 몰타 기사단, 내각을 ‘캐비닛’이라고 부르는 이유, 20분이라는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국왕들의 이야기 등등 흥미로운 역사 속 사건들을 한 꺼풀 들춰내고 있으며, 이들 이야기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승엽 동문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역사 속에 있는 감동과 환희, 비판과 아픔 그리고 소박한 웃음거리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EXHIBITIONS

7의 순간

2월 28일까지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오인환,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곳'

창간 10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와 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한글특별전. 고 황창배(회화70졸)·서도호(회화81-85)·오인환(조소84-88)·이수경(서양화83-87)·강이연(서양화02-06) 등 문, 김환기·박수근·백남준 작가 등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47명이 저마다의 작품세계에서 한글을 표현했다. 문의: 02-580-1300

김민애 동문 참여 올해의 작가상2020

4월 4일까지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 안녕하세요 2. Hello'

모순적 상황을 조각을 통해 표현하고, ‘장소특정적’ 설치물을 개입시켜 구조와 제도, 틀 자체를 비튼다.

문의: 02-3701-9500

*1월 준승 현재잠정 휴관

CONCERTS

피아니스트 허효정 인문학 리사이틀Ⅲ

2월 2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의 기반이 된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 작품과 함께 들려준다. 문의: 02-580-1300

문의: 02-580-1300



우리은행 집콕지점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WON뱅킹

집콕지점 TIP

NEW

계좌번호 없이도 가능한
연락처 이체 서비스

NEW

등록 후 3년간 유효한
WON 금융인증서

메인 화면에서 바로 되는
타행 계좌 간편 조회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는
내 계좌 총 잔액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1 순법감시인 - 3088 심리됨(유효기간 : 2021.12.20)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취임.



국가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 사회학회(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 회장에 취임.



장범식 (영 어 교육 76-80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12월 10일 송실대 제15대 총장으로 내정.



장원호 (사회80-84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12월 18일 한국사회학회 제63대 회장으로 취임.



오세철 (건축81-85 삼성물산 부사장) 12월 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한기정 (공법82-86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출.



최주선 (전자82-86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12월 2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강호성 (사법83-87 CJ 경영지원총괄) 12월 10일 CJ ENM 신입 대표에 내정.



장으로 승진.



이정배 (전자85-89 삼성전자 D램 개발실장) 12월 2일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에 선임.



최은석 (경영85-89 CJ 경영전략총괄) 12월 10일 CJ제일제당 신입 대표에 내정.



신희동 (경영87-93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에 선임.



하임숙 (영문91-95 동아일보 산업1부장·본지 논설위원) 12월 30일 채널A 보도본부 보도제작에 디터(부국장급)에 임명.



이명건 (ALP 28기 동아일보 부국장) 12월 4일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양우주 (AMPP 17기 Sh수협은행 감사부장) 12월 10일 Sh수협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선임.



민태홍 (ASP 36기 화가) 최근 대한민국 현대미술 작가회 회장 취임.

변성수 (미학84-89 KB국민카드 경영지원본부 상무) 12월 30일 KB국민카드 경영지원본부 부사장으로 승진.

박응식 (공법85-91 ISSUE&NEWS 대표) 최근 ‘월간 CEO&’ 부사장 겸 편집국장에 선임.

이정배 (전자85-89 삼성전자 D램 개발실장) 12월 2일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에 선임.

최은석 (경영85-89 CJ 경영전략총괄) 12월 10일 CJ제일제당 신입 대표에 내정.

신희동 (경영87-93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에 선임.

하임숙 (영문91-95 동아일보 산업1부장·본지 논설위원) 12월 30일 채널A 보도본부 보도제작에 디터(부국장급)에 임명.

이명건 (ALP 28기 동아일보 부국장) 12월 4일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양우주 (AMPP 17기 Sh수협은행 감사부장) 12월 10일 Sh수협중앙회 준법감시인에 선임.

민태홍 (ASP 36기 화가) 최근 대한민국 현대미술 작가회 회장 취임.

송상용 (화학55-59 한림대 명예교수) 10월 31일 한국과학사학회 창립 60주년 특별공로상 수상.

이흥식 (수의학61-65 모교 명예교수) 11월 26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공로상’ 수상.



김명자 (화학62-66 서울국제포럼 회장·본회 부회장)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융합 분야)에 선정.



노승탁 (기계62-66 모교 명예교수)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엔지니어링 분야)에 선정.



조 은 (영문65-69 동국대 명예교수) 출연·연출·제작과 내레이션까지 1인4역을 맡은 다큐멘터리 ‘사당동 더하기 33’이 최근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



박진선 (전자68-73 생표 대표) 11월 18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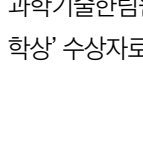
이재규 (산업69-73 카이스트 명예교수) 최근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 ‘2020년 리오상 (LEO Award)’ 수상자에 선정.



김영훈 (행정71-75 대성출딩스 회장·본회 부회장) 최근 한국에너지대상 은탑산업훈장 수훈.



신학철 (기계73-79 LG화학 부회장) 12월 18일 한국협상학회가 수여하는 ‘2020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윤석후 (농화학73-77 전 우석대 교수) 유지생명공학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유지화학회(AOCS)가 수여하는 ‘2021 AOCS Ching Hou Biotechnology Award’ 수상자로 선정.

서일원 (토목77-81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2월 9일 대한토목학회 제19회 송산토목문화대상(학술 부문) 수상.

이미경 (가정관리 77-81 CJ부회장)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선정하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더 500(버라이어티 500)’에 선정.

박규환 (물리78-82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훈림원이 수여하는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선정.



박원우 (경영78-82 모교 경영대 교수) 최근 세계적인 학술전문 출판사인 에머랄드(Emerald Publishing)가 경영, 사회과학, 공학 등 매년 각 분야 최고논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2020 Emerald Literature Award’ 수상.



이경무 (제어계측 80-84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근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펠로(석학회원)에 선정.



정승철 (국문82-86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2월 3일 제32회 한국어문상 시상식에서 한국어문 기자협회장상 수상.



박부견 (제어계측 84-88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한국공학상’ 수상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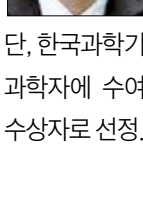
김범식 (수학85-89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수여하는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선정.



방시혁 (미학91-97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회장)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선정하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더 500(버라이어티 500)’에 선정.



함유진 (자연과학 99-03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신현동 (대학원99-04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 최근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펠로)에 선정.

주영석 (의학01-07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40세 미만 과학자에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

서인석 (수리과학 03-07 모교 수리과학부 교수)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한수원이 만들어 갑니다

요즘 내 친구 한수원이 엄청 바빠요.

미세먼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장난 날씨도 고쳐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문건설공제조합
Korea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국내 보증기관 최초 **MOODY'S A3** 등급 획득

조합원과 함께 쌓아올린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한 재무건전성과 건설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인의 꿈과 희망을 모아
건설업의 상생과 협력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조합원 5만여개사
자본금 4조 9천억원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투자사업, 교육사업
금융부가서비스, 지원서비스
조합원 지위향상, 건설업 생태계 조성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종 보증과 융자, 어음 할인, 공제 상품 등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임대,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전문금융기관입니다.



ASTA
APPLIED SURFACE TECHNOLOGY ASCEND

Microorganism ID Breakthrough
AST ready and space saving design

MicroIDSys Elite (MALDI TOF Mass Spectrometry)

950mm
800mm
450mm

High Accuracy (+MTB/NTM)
High Speed
Compact Size

www.astams.co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1층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Tel 031-888-9596 E-mail salesmarketing@astams.com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3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장단·단체 및 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0. 11. 24~2020. 12.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하시면

회비 납부 방법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제휴 병원 건강검진 우대
○경조 서비스 (실비 부담)
○익년도 포켓수첩 또는 탁상달력 제공
○제휴호텔·리조트·펜션 등 할인

구 분	입 회 비	연 회 비	평 생 회 비
일반회원	10,000원	30,000원	300,000원 (65세 이상은 200,000원)
이사회원	-	100,000원	700,000원 (65세 이상은 500,000원)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2020년 단체별 누적 회비 납부 인원

총 10,004명 *12월 23일 현재

구분	인원
인문대	237
사회대	396
자연대	242
간호대	72
경영대	220
공대	1274
농대	782
문리대	562
미대	150
법대	764
사대	797
상대	490
생활대	78
수의대	170
약대	275
음대	203
의대	337
자유전공	17
치대	285
대학원	914
특별과정	1739

자문위원			
△이순재	문리대	54	
상임부회장			
△김종섭	문리대	66	△송웅순 법대 71
△박용만	경영대	73	
부회장			
△문애리	약대	79	△김성천 미대 82
△이의범	자연대	82	△정영태 경영대 82
△양윤선	의대	83	△이석희 공대 84
△최성원	경영대	88	
감사			
△김영갑	법대	74	
관악회 이사			
△민경업	의대	70	
각 단대동창회장			
△김주필	문리대	63	자연대동창회장
△권영걸	미대	69	미대동창회장
논설위원			
△박종성	인문대	82	
평생회비 - 이사			
△강호언	공대	73	△김경일 인문대 76
△김규석	경영대	94	△김기영 사대 95
△김명호	공대	69	△김성남 의대 08
△김용환	공대	83	△김운성 GLP 35
△김문태	AMP	80	△김인기 ALP 27
△김종관	치대	63	△김종상 ASP 13
△김종훈	법대	76	△김형범 ABKI 7
△남상현	수의대	69	△노태욱 공대 69
△민영일	의대	59	△박기복 의대 53
△박용수	법대	68	△박정열 상대 60
△박종욱	AMP	78	△석종성 문리대 54
△성기철	사대	58	△손욱동 AMP 81
△송권호	AMP	76	△송윤화 경대원 94
△신지훈	FIP	14	△안광덕 SPARC 33
△안세진	의대	92	△안영열 사대 91
△유용근	의대	54	△윤해근 의대 70
△이강중	농대	65	△이병두 의대 70
△이상민	공대	04	△이숙희 인문대 80
△이용섭	GLP	18	△이유희 음대 68
△이인휘	농대	77	△이창섭 공대 66
△이하영	약대	11	△이한철 치대 05
△임윤영	의대	62	△임진환 경영대 83
△장영철	경전원	17	△전선규 공대 92
△정현미	자연대	82	△정현주 GLP 35
△조영래	농생대	82	△조일호 행대원 70
△조장호	농대	59	△조진현 사대 57
△최선홍	문리대	58	△최왕언 AMP 23
△최환의	농대	63	△한영수 SPARC 12
△허보윤	의대	04	△홍승연 간호대 93
평생회비 - 일반			
△강대훈	사회대	92	△강동혁 공대 13
△강우형	경영대	18	△고재필 대학원 93
△고태혁	법대	99	△고홍민 인문대 10
△국정우	ALP	30	△김강현 자유전공 12
△김래운	사회대	01	△김민수 공대 13
△김수연	수의대	08	△김승모 공대 97
△김영식	약대	74	△김영재 AMP 36
△김예준	인문대	11	△김재현 법대 11
△김정덕	공대	69	△김준영 공대 08
△김혁중	공대	74	△김형곤 자연대 73
△김호걸	미대	53	△김하니 사대 16
△김희국	농대	72	△남승우 사회대 90
△남윤석	공대	83	△남윤석 자연대 11
△노규덕	사회대	81	△류아현 사회대 08
△문성호	인문대	14	△박수빈 법대 02
△박순일	상대	69	△박철환 KFL 23
△박희성	대학원	95	△방호근 자연대 73
△배소은	사대	14	△배유재 국대원 17
△백영일	문리대	67	△백진호 대학원 96
△서광벽	공대	73	△서종도 의대 06
△송민호	자연대	13	△신극범 교대원 68
△신영수	공대	66	△신태형 문리대 71
△심택보	농대	68	△안보영 법대 68
△안수진	경전원	11	△안지윤 경영대 04
△양희완	문리대	67	△오경수 사회대 00
△오세익	공대	82	△육성환 경영대 92
△원태환	공대	84	△유지호 치대원 12
△윤명숙	사대	67	△윤인희 보대원 79
△이부희	KFL	24	△이상근 농대 70
△이상훈	농생대	93	△이상엽 사회대 02
△이승희	공대	06	△이영보 SPARC 37
△이은중	미대	86	△이인애 미대 81
△이재부	HPM	23	△이정연 생활대 13
△이정희	법대	84	△이중훈 법대 78
△이진학	의대	65	△이재원 미대 16
△이현덕	의대원	10	△이형석 농생대 92
△이혜연	공대	09	△장경미 AHP 5
△장동규	법대	07	△장영화 보대원 01
△정대영	공대	75	△정성희 ASP 39
△정한별	사대	08	△정현주 사대 91
△조인호	미대	96	△최규근 약대 60
△최방길	AMP	53	△최병석 법대 99
△최우방	공대	63	△최인기 공대 98
△최호자	약대	63	△함윤주 AWASB 7
△허병기	자연대	73	△허 훈 사회대 99
△홍유진	생활대	16	△홍주욱 미대 95
△황주현	공대	73	
연회비 - 이사			
◆사회대	△박장호 85	△박종석 83	
△오택근 89	△조영일 77		
◆자연대	△노해림 80	△이용학 74	
△이철의 75	△임완중 87	△허은기 84	
◆간호대	△김경자 60		
◆공대	△곽성용 77	△김동진 83	
△김원수 61	△김재익 69	△박상서 83	
△양준호 80	△윤대호 78	△이상호 66	
△이성규 58	△이호원 97	△임민수 66	
△정규상 60	△조현기 54	△최도철 87	
△최세천 60	△하상모 98	△황금영 72	
◆농대	△서정근 59	△이남호 83	
△조장호 59	△최락현 61	△하영주 83	
△이승진 97			
◆문리대	△김기중 59	△이세운 65	
△이정윤 54	△이종한 62	△정태철 55	
◆법대	△김남근 82	△김수홍 97	
△김윤기 75	△김중훈 76	△김 훈 85	
△박 만 70	△안홍렬 75	△이건개 59	
△이주관 97	△최세영 60	△한준엽 69	
◆사대	△김천수 58		
△이동준 13	△황정하 96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이병수 57	△이성영 63	△이승현 15	
△이우철 52	△이준의 58	△이창섭 70	
△이현율 14	△장덕수 66	△정무진 64	
△정영배 59	△정치현 60	△조봉주 16	
△조상규 64	△조원대 62	△최준혁 14	
△한희서 61	△홍주희 04	△황용하 17	
◆농대	△김명주 84	△김문규 49	
△김철균 71	△박봉현 68	△안희철 68	
△유지성 59	△이인형 56	△이호걸 67	
△장대석 58	△장창순 53	△조민형 58	
△최종호 00			
△이동준 13			
◆경대	△구성준 08	△박종호 00	
△이동준 13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이병수 57	△이성영 63	△이승현 15	
△이우철 52	△이준의 58	△이창섭 70	
△이현율 14	△장덕수 66	△정무진 64	
△정영배 59	△정치현 60	△조봉주 16	
△조상규 64	△조원대 62	△최준혁 14	
△한희서 61	△홍주희 04	△황용하 17	
◆농대	△김명주 84	△김문규 49	
△김철균 71	△박봉현 68	△안희철 68	
△유지성 59	△이인형 56	△이호걸 67	
△장대석 58	△장창순 53	△조민형 58	
△최종호 00			
△이동준 13			
◆경대	△구성준 08	△박종호 00	
△이동준 13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이병수 57	△이성영 63	△이승현 15	
△이우철 52	△이준의 58	△이창섭 70	
△이현율 14	△장덕수 66	△정무진 64	
△정영배 59	△정치현 60	△조봉주 16	
△조상규 64	△조원대 62	△최준혁 14	
△한희서 61	△홍주희 04	△황용하 17	
◆농대	△김명주 84	△김문규 49	
△김철균 71	△박봉현 68	△안희철 68	
△유지성 59	△이인형 56	△이호걸 67	
△장대석 58	△장창순 53	△조민형 58	
△최종호 00			
△이동준 13			
◆경대	△구성준 08	△박종호 00	
△이동준 13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이병수 57	△이성영 63	△이승현 15	
△이우철 52	△이준의 58	△이창섭 70	
△이현율 14	△장덕수 66	△정무진 64	
△정영배 59	△정치현 60	△조봉주 16	
△조상규 64	△조원대 62	△최준혁 14	
△한희서 61	△홍주희 04	△황용하 17	
◆농대	△김명주 84	△김문규 49	
△김철균 71	△박봉현 68	△안희철 68	
△유지성 59	△이인형 56	△이호걸 67	
△장대석 58	△장창순 53	△조민형 58	
△최종호 00			
△이동준 13			
◆경대	△구성준 08	△박종호 00	
△이동준 13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이병수 57	△이성영 63	△이승현 15	
△이우철 52	△이준의 58	△이창섭 70	
△이현율 14	△장덕수 66	△정무진 64	
△정영배 59	△정치현 60	△조봉주 16	
△조상규 64	△조원대 62	△최준혁 14	
△한희서 61	△홍주희 04	△황용하 17	
◆농대	△김명주 84	△김문규 49	
△김철균 71	△박봉현 68	△안희철 68	
△유지성 59	△이인형 56	△이호걸 67	
△장대석 58	△장창순 53	△조민형 58	
△최종호 00			
△이동준 13			
◆경대	△구성준 08	△박종호 00	
△이동준 13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이병수 57	△이성영 63	△이승현 15	
△이우철 52	△이준의 58	△이창섭 70	
△이현율 14	△장덕수 66	△정무진 64	
△정영배 59	△정치현 60	△조봉주 16	
△조상규 64	△조원대 62	△최준혁 14	
△한희서 61	△홍주희 04	△황용하 17	
◆농대	△김명주 84	△김문규 49	
△김철균 71	△박봉현 68	△안희철 68	
△유지성 59	△이인형 56	△이호걸 67	
△장대석 58	△장창순 53	△조민형 58	
△최종호 00			
△이동준 13			
◆경대	△구성준 08	△박종호 00	
△이동준 13			
◆공대	△강경민 01	△곽지민 16	
△구정모 93	△김경남 95	△김경준 03	
△김기용 60	△김두현 72	△김민철 97	
△김상식 58	△김성환 13	△김영환 56	
△김우성 83	△김재용 07	△김종민 68	
△김태현 58	△남승민 10	△문상익 16	
△민환기 98	△박봉석 91	△박영규 58	
△박천권 09	△백승화 14	△서승범 09	
△안상규 85	△이경순 69	△이덕준 58	

동문칼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조건



이현구

화학공학58-62
모교 공대 명예교수
전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글로벌설문조사기관 IPSOS에서 2020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OECD 국가 포함 총 29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귀하의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3가지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거의 모든 대상국에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기후 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기후변화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에 기인하는데 폭염, 폭우, 홍수, 가뭄, 대형 산불, 해수면 상승, 식량 위기, 생태계 파괴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으로 지구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3년간 가장 더웠던 여름, 가장 따뜻했던 겨울, 가장 길었던 장마, 잦은 태풍, 아열대성 기후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이 상 기후 현상을 직접 겪었다. 이대로 가면 2050년경 지구는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별이 된다’는 예측도 있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채택) 내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이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더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에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는 2018년 인천에서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총회에서 제시되었으며 이미 EU 국가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발전전략을 제출한 상태인데 대부분 8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어서 15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식화했다. 2050년까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배출량을 ‘0’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최근에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연간 배출량이 계속 늘어, 2018년엔 7억 톤을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으며 ‘기후악마’라는 오명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발전과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총배출량의 72%에 달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거기에 연계된 발전 수요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에너지 총 소비는 세계 9위를 점하고 있다. 그만큼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발전부문에 관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에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의 전력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LNG발전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LNG발전은 석탄보단 적지만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지 못하며 태양광 및 풍력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성취하기란 지극히 난망한 일이다. 물론 한창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핵융합발전이나 우주태양광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2050년까지 실용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부문 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지향하게 되겠지만, 2,000만 대를 넘는 국내 차량이 모두 전기차로 바뀌면 그에 따른 전력 수요는 현재 발전량에 버금가는 규모

로 추정된다고 한다. 수소의 대량 확보는 궁극적으로 물의 전기분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전기 수요 또한 만만치 않다. 4차산업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자율형 자동차 등 상당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제철분야에서는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환원제철공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기대된다. 석유화학과 시멘트 산업은 원료 자체가 탄소화합물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의 원료인 납사나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철, 석유화학 및 시멘트 산업과 같이 고온 공정에서 요구되는 가열에너지를 전력화한다면 이에 따른 전력 수요 또한 엄청난 부담이 된다. 수송, 건물, 농업 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합심하여 세부정책을 입안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시민단체의 참여와 국민 모두의 관심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개별 방법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①에너지 절약 ②대중교통 이용하기 ③쓰레기 줄이기와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④육류 섭취를 줄이고 해산물이나 식물성 음식물 섭취하기 ⑤공원이나 산에 나무 심기와 실내외에 공기정화식물 비치하기 ⑥담쟁이 넝쿨로 건물 표면 덮기(그린커튼) 등을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이외에도 전문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다양한 항목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을 원년으로 하여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기필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느티나무 칼럼

세종이 없었다면 장영실도 없었다



성기홍

사회86-90
연남뉴스TV 보도국장
본지 논설위원

장영실은 자격루를 최초로 만든 과학자다. 과학적 재능이 탁월했다. 그를 조선시대 최고 과학자로 만든 것은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분제 시대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고, 사대주의 시대 조선의 하늘과 시간은 중국을 따라야 했다. 신분을 뛰어넘는 세종의 과학적 용인술, 조선의 시간을 갖겠다는 세종의 혁명적 의지, 관료적 타성을 깨는 세종의 창발성이 없었다면 자격루(물시계), 앙부일구(해시계), 간의대(천문대) 같은 장영실의 과학적 성취는 없었다.

지난해 말 국내에 코로나19 백신 논쟁이 일었다.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백신 우선수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백신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견해가 충돌했다. “우리나라엔 백신과 치료제가 도대체 언제 개발되느냐”는 불만과 질타도 일었다. 백신은 과학인 만큼 “정치가는 빠지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방역 대처를 놓고 왜 과학자, 전문가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힐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선무이지만, 의학·과학의 영역에서만 다뤄질 문제는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영역에서 고려할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백신의 연구 개발은 ‘실험실 안’(과학)에서 이뤄지지만, 백신의 승인과 도입, 배분, 접종까지 과정은 ‘실험실 밖’(정치)의 영역이다. ‘실험실 밖’의 장애물이 정돈되지 않으면 ‘실험실 안’의 성취도 어렵다.

백신 개발은 과학자들의 몫이긴 하나, 백신의 효험이 입증되지 않은 상

태에서 임상시험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임상대상자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 또는 행정의 영역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업체는 개발에 필요한 임상대상자를 구하는 데 애로를 호소했다.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 캠페인을 벌이지만 참여자는 저조하다. ‘실험실 밖’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과학은 전진하기 힘들다.

백신 개발은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내달렸지만, 정작 화이자 백신의 승인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빨랐다. 왜 영국이 빨랐을까? 영국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 테이블에 오른 백신은 다르지 않았지만, 양국의 검토 절차는 달랐다. 미국이 더 까다로웠다. 백신 접종이 지연될 경우 초래될 희생과 백신을 성급하게 접종했다 잘못될 경우 초래될 희생을 둘러싼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백신 개발을 성공시키는 데 기여한 미 행정부의 태스크포스 팀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계약에 100억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6개 제약사와 선구매계약을 했는데,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구매대금을 되돌려줄 의무가 없는 조건이었다. ‘혈세 낭비’ 문책으로 징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한국 공무원 은 엄두를 내기 힘든 결정이다.

“우리는 백신 도입을 왜 빨리 못했느냐”, “백신 승인을 왜 빨리 하지 않았느냐”, “당국의 판단과 결단이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응당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곁에 드러난 결과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소모적 논쟁이다. 백신 개발과 도입이라는 과학에 기대를 거는 만큼, 그 율타리 너머의 정치도 함께 살펴야 한다. 세종이 없었다면 장영실도 없었다.



www.kftec.com



사람을 위한 기업, 미래를 향한 기술

글로벌 자동차 친환경부품 전문기업 - 코리아에프티
KFTC(Korea Fuel-Tech Corporation)

Eco-friendly Korea Fuel-Tech Corporation

코리아에프티의 친환경적, 친인간적 기술력은 우리 삶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코리아에프티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바위길23
TEL : 070-7093-1500 FAX : 031-656-4451

마음의 눈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동승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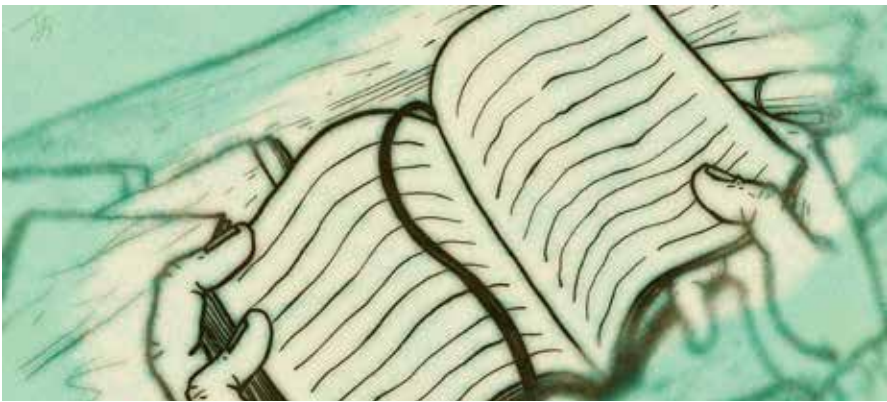
이상규
영문65-69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

40대 중반 때였다. 서류를 읽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글씨가 두 겹으로 보였다. 뭐가 끼었나 싶어 눈을 비비고 떠보았다. 선명하게 보이더니 그것도 잠시, 금방 다시 겹쳐 보였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안과병원을 찾았더니 망막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다. 간단하다는 의사의 말에 시술을 받았지만 안구에 주사바늘을 찌르는 순간은 아찔했다. 처방해준 약을 얼마간 복용하고 치료를 받자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이라도 많지 않은데 왜 갑자기 멸절한 눈에 이상이 생겼을까? 지사 근무로 열사의 나라에서 3년 산 것뿐인데 적외선

이 눈에 영향을 미쳤으면 얼마나 미쳤을라고. 부모형제들 중에 안경 낀 사람도 없으니 가족력도 아닐 텐데... 몇 년은 그럭저럭 잘 버텼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시야가 흐려지면서 시력이 나빠졌다. 결국 세월 탓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안경점에서 돋보기를 써보니 글씨가 크게 보일 뿐 아니라 어찌나 선명한지 깜짝 놀랐다. 안경을 끼자 사방이 선명하게 보이고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그런데 얼룩진 렌즈를 자주 닦는 등 전에 없던 불편이 일었다. 글을 읽을 때 안경을 꺼내 쓰고 다시 챙겨 넣고 하는 것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내 주특기인 건망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시도 때도 없이 안경을 잃어버리고 되찾는 일이 허다히 일어났다. 결국 표준 돋보기 안경을 여러 개 사서 사방에 비치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분이 있다고 마음을 놓아선지 이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후로는 더 자주 잃어버려 감당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작심하고 고급 안경을 하나 사서 끼고 비상용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몇 년을 버텼다. 잃어버린 안경을 되찾는 내 노력은 처절했다. 전날 식당에 놓고 온 것뿐 아니라, 해외출장 중 잃은 것도 수소문해서 비행기편에 되찾아오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애지중지하던 안경을 기어코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디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허망했다. 집 나간 애견을 기다리는 심정이 이런 걸까.

결국 동네 안경점 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비싼 다초점안경을 구입했다. 계속 끼고 있으니 쉬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싶었다. 불편하던 조정기를 극복하고 몇 년째 쓰고 있으니 습관으로 안정된 셈이다. 일정 장소에만 안경을 놓고, 집을 나올 때는 현관 앞에서 잊은 물건

이 없나 끊임없이 점검을 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러나 자주눈의 피로를 느끼고 컴퓨터 화면도 2~3시간 이상은 계속 볼 수가 없다. 안경을 끼고도 시력이 0.6~0.7 정도로 나빠졌다.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운전면허증 재검을 통과하지 못할까 은근히 걱정이다. 나는 언제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으려나? 그러려면 눈을 아껴야 할 텐데. 낮에만 책을 읽는다는 한 친구의 결단이 내겐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거나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삼가야겠다.

나이 들어 시각과 청각이 나빠지는 것이 불필요한 것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과정에서 비록 육체의 눈은 약해져도 사물을 보는 눈, 삶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라도 더 넓고 깊어지기를, 더 선명하고 그득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선약(善約) 장학제도



동창회에 바란다
강규영
농화학68-72
경상대 명예교수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하신 이수영(법학56-60) 광원산업 회장님의 동창신문 인터뷰 기사가 서울대학교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분이 범대 장학재단 이사장 시절 42억 기부금을 마련하셨지만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는 후배들을 보고 실망하였다”라고 했다. ‘가슴(양심)’이 없는 잔재주꾼이 아니라 가슴 따뜻하고 반듯한 지성인 배출과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장학제도의 모델인 하버드대 파우스트(D. G. Faust) 총장은 재임 기간(2007-2018)에 약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그녀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들의 경제 상황을 입력하면 지원금

명세를 산출하는 NPC(net price calculator)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20학년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 20%는 무료, 55%는 가계지원 장학금을 받아 평균 지원액이 5만3,000달러로 학비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서울대는 어떤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어 모든 학생이 사실 국가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총동창신문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대 장학금은 855억(교내=324억+교외=531억)으로 수혜율 66.9%라고 한다. 2020년 관악회에서 1,280명에게 34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선약(善約)’ 장학금 - 사회공헌 엘리트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수 장학금: 60년대 말 70년대 초 매년 전공학과 학년별 5% 이내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주는 ‘우등상’과 상패가 있었다. 급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고취하는 명예로운 우수 장학금이 필요하다. 단, 가족 소득이 일정 이상인

학생은 일부를 명예의 징표로 주고 나머지는 릴레이 기부로 장학재단이나 친구에게 기부토록 권장하면 어떨까?

사회공헌 가계지원 장학금: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금이다. 전체 장학금 규모가 커지면 가족 소득에 따른 구간별 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돈이 모자라 학업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한다.

운용 방법: 전 장학생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지닐 수 있게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고 또 좋은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장학금 지급 전 3가지 착한 약속이 필요하다.

인생사용 계획서: 자기의 꿈과 그 실현을 위한 자필 인생사용 계획서

미리 쓰는 선약(善約) 릴레이 plus 기부 약정서: 자기 꿈이 실현되는 대로 본인이 혜택을 받았던 장학금 + α 릴레이 기부 약정서

장학금 반납 서약서: 지급 목적을 위반해 잘못 사용한 경우 반납하는 부모 동반 서약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의 숭고한 뜻과 정성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명문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부한 사람을 명문(名門)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 아닐까? 기부의 선순환(善循環)이다. 다듬을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몇 가지 기금 마련 방안을 제시해 본다.

유산의 기부 유도: 영국 케임브리지에 가면 곳곳에 대학(college) 소속 주택들이 있고 그 집을 교환 교수, 박사후 연구원 등에게 저렴하게 주당 임대료를 받고, 관리도 한다. 주민이 기부한 주택일 것이다. 우리도 이런 곳을 눈여겨봐서 기부 재산 규모에 부분적으로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평생 교육, 건강,

법률 등)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장학재단에 넣어 그 뜻을 선양하는 것이다.

학술림의 활용: 전국에 있는 학술림 중 일부를 ‘엄마 뱃속에서 수목(樹木)장’까지 손잡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수목공원이나 식물원으로 꾸미고, 근처 양지바른 곳에 소규모 ‘SNU 수목 안식처(가칭)’를 조성해서(예를 들면 사계를 대표하는 꽃이 피는 수목+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이팝나무 아래, 은행나무 아래 등) 매년 한식일에 기부자와 수혜자의 마음을 교감하는 ‘보람과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

우리 후학들이 돈이 모자라 그 꿈을 좌절시켜서야 하겠는가? 가슴 따뜻하고 책임 있는 올곧은 지성인 양성을 응원한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이희범	편집인 이승무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 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광고기획 한우리 SJM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1 노블레스 결혼정보
결혼엔 엔노블

品格있는 아름다운 만남

서울대 동문 및 가족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2,800 SKY대학 출신 | 2,978 전문직 종사자 | 605 100억대 이상 자산가 (2019. 3월 기준)

서울본사 | 서울 강남구 논현로 811(신사동, 엔노블 B/D) 부산지사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11호(우동, 트럼프월드센텀)

해외지사 | New York 718-487-9751 L.A 213-342-8566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 강남-국내-15-0005

대표상담전화 1577-2050
www.noble.co.kr

Lifetime Value Creator
고객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롯데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www.lotte.co.kr

가장 가까이에서 롯데가 힘이 될게요.



모든 순간을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당신의 인생과 함께 가는 좋은 친구



함께 가는 친구, 롯데